



사단법인 **인간개발연구원**

좋은사람 좋은세상

Better People Better World

2011.03+04

통권 제104호 (비매품) 등록번호 서울 마 03200 발행일 2011년 3월 5일
발행인 정만기 편집 정용달 TEL 02-2203-3500(대) FAX 02-2203-1974
디자인 하나로애드컴(www.hanaroad.com) 인쇄 (주)광진문화
주소 135-280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66-4 동성빌딩 202호(www.khdi.or.kr)

CoverStory 제임스 최 스펙만 푸르덴셜생명(주) 회장 가족사랑 인간사랑 실천하는 영원한 푸르덴셜맨

머릿글 오종남 前 IMF 상임이사

3·4월 프로그램

Issue&Seminar

- <신년하례회> 김진현 대한민국역사박물관관립위원회 위원장

- <36주년 기념포럼> 김황식 국무총리

발행인편지

Special Focus CEO 미디어스피치 3기

회원칼럼 이보규 21세기사회발전연구소 소장

경영Essay 유혜선 SM컨설팅 대표

회원&연구원소식

아카데미 뉴스

정보비타민

크리스천 리더스 아카데미

명사초청특강 김태우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Hot&Issue 주택관리공단

홍원탁칼럼



표지인물 제임스 최 스펙만 푸르덴셜생명(주) 회장 | 사진 오경근 원장

따뜻한 이웃 다정한 친구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기원합니다



21세기 삶의 공식 Triple 30(30+30+30)

필자는 어린 시절 점심을 배불리 얻어먹을 수 있는 동네 어른의 환갑잔치가 그렇게 좋을 수 없었다. 조금 여유가 있는 집에서 환갑잔치라도 하는 날엔 저녁까지도 잘 얻어먹을 수 있었다. 제대로 하루 세 끼 밥도 못 먹던 가난한 시절, 동네 어른의 환갑잔치는 그야말로 실이나 추석만큼 기다려지는 일이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환갑잔치는 고사하고 70세 고희잔치조차 가까운 친척끼리 조촐하게 하는 행사로 변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1960년 52세에서 2008년 80세를 넘어섰다. 50년이 채 안 되는 사이 30세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이러니 환갑잔치나 고희잔치를 크게 하기는 쑥스러운 세상이 되었다. 이제는 일단 환갑을 넘기지만 하면 그로부터 30년 정도는 더 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이름하여 '장수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필자는 '21세기 삶의 공식'이라는 것을 만들어 보았다. 우리 부모 세대는 30년 부모 도움 받으며 살고, 30년 부모 노릇하고 살다가 환갑을 맞으면 나머지 인생은 '남을 여餘'자 여생이었다. 즉 30+30+알파다. 그런데 우리 세대는 환갑 이후에도 또 30년 정도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 삶의 공식은 Triple 30, 즉 '30+30+30'이 된 것이다.

그러면 장수는 축복인가? 꼭 그렇다고 대답하기엔 망설여지는 면이 있다. 환갑을 맞는 분들을 경제적으로 마지막 30년을 살 준비가 된 그룹과 그렇지 못한 그룹, 두 그룹으로 크게 나누어 보자. 환갑을 맞는 시점에서 경제적으로 준비가 안 된 그룹에게는 우선 은퇴 후 30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걱정일 것이다. 이들에게 장수는 축복이기는커녕 악몽일 수밖에 없다. 경제적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해서 행복이 저절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 장수가 축복이 되기 쉽지 않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이들은 왜 준비 없이 노후를 맞이하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옛날 초등학교 시절 국어와 산수 시간에 배운 것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누구나 초등학교 때 국어와 산수를 배웠다. 국어 시간에 주제파악을 배웠고, 산수 시간에 분수를 배웠다. 이것이 야말로 노후대책의 비결이 아닐 수 없다.

죽을 때 장례비만 남겨 놓고 다 쓰고 죽는 것이 가장 돈 잘 쓰는 방법이라고 배운 어떤 분이 80세쯤에 돌아가실 걸로 믿고 거기에 맞추어 살다 보

니 80회 생일에 수중에 장례비만 남게 되었다. 그런데 아직도 안 죽고 살아 있으니 자식에게 "죽을 때까지 한 달에 용돈 얼마씩 줄 거냐?"고 묻는다면 좋아할 자식이 몇이나 될까? 겉으로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는 노후 대비도 제대로 안고 살아온 부모를 원망할지도 모를 일이다.

2008년 2월 3일,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제학자인 하버드 대학의 맨큐(Mankiw) 교수는 자신의 50회 생일을 맞아 <뉴욕타임즈>에 '나의 생일 소원'이라는 제하의 칼럼을 기고했다. 흥미로운 것은 그 칼럼의 부제가 '자식에게 부담 안주기(Not burdening our children)'라는 것이다.

이 시대를 사는 많은 이들은 부모가 희생하면서 자식들 교육시킨 덕에 이만큼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자신들도 자라면서 부모에게 배운 대로 자식을 뒷바라지하느라 자신의 노후 대비는 뒷전으로 미룬다. 하지만 21세기를 사는 우리 세대의 진정한 자식사랑은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자식을 위해 뒷바라지하다가 늙어서 집이 되기보다는, 젊은 시절부터 자신의 노후에 대비해서 은퇴 후에도 살아갈 길고 긴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그렇다면 노후대비 실천 강령은 무엇인가? 오늘 이 순간부터 '자식'에게 all-in하는 계획을 수정해서 half-in만 하고 나머지 half는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이다. 물론 실천은 쉽지 않다. 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자식을 위한 길임을 생각하면 자식이 싫어할 일도 아니고 부모가 못할 일도 아니다. **김재민**



●오종남 교수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SMU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와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75년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 경제기획원과 재정경제원에서 경제관료로 일했다. 청와대에서 정책, 건설교통, 산업통신과학, 재정경제 등의 대통령 비서관을 지냈으며, 통계청장과 한국인 최초로 IMF 상임이사를 역임했다. 현재 서울대 과학기술혁신 최고과정 주임교수와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일하고 있다. 저서로 <한국인 당신의 미래>, <은퇴 후 30년을 준비하라> 등이 있다.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프로그램

매주 목요일 07:00~09:00

■ 중동 민주화사태로 본 한국의 새로운 진출 전략과 대응

제1682회 3월 3일(목) 플라자호텔 22층 다이아몬드홀
서정민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튀니지와 이집트에서 시작된 민주화 혁명의 불씨가 리비아로까지 옮겨붙어 견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자칫 아랍권 전역으로 옮겨붙을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아프리카와 중동지역의 반정부-민주화 시위가 중동 최대 산유국이자 중동의 화약고인 사우디아라비아까지 확산될 경우 석유 공급 문제는 심각해질 수 있다. 유가상승 등 에너지 수급 문제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아랍 대부분의 산유국은 부의 근원인 유전이 국가 소유로 철저한 국가 주도의 경제체제를 갖고 있다. 따라서 정권이 무너지면 경제주체 또한 바뀌게 되고, 전략 역시 성장 중심에서 분배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태가 실업, 고물가 등 생활고가 배경이 됐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번 사태는 경제구조를 흐드는 것을 넘어 민주화를 통한 시민의 요구가 적극 반영됨으로써 맞춤형 정권 등 다양한 정권의 등장으로 정치적 다양성을 양산해 낼 것이다. 이런 변화에 따라 중동지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중앙일보 중동 특파원 출신으로 중동통으로 잘 알려져 있는 서정민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중동아프리카학과 교수를 초빙하여 중동 민주화 사태를 통해 앞으로 다가올 중동의 변화와 이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중장기적인 진출 전략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 국민연금의 변화와 도전

제1683회 3월 10일(목)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전광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2010년 국민연금기금의 순자산은 324조 원으로 전년 대비 46조 원 증가했다. 기금운용 수익은 30조 원, 운용수익율은 10.38%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최대 수익금으로 2009년에 이어 2년 연속 두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한 것이다. 국내 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하면서 주식시장이 이에 연동해 상승국면을 이어가면서 자산운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7월, 적립기금 300조 원을 조기에 달성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와 함께 연금가입자 2000만 명, 수급자 300만 명 시대를 열었다. 이는 세계 4대 연기금에 해당한다. 공단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내 연금 갖기' 범국민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총력을 기울인 결과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평균수명이 기존의 국민연금 계산보다 앞당겨지는 만큼 연금 재정 고갈 시점도 함께 당겨진다는 점은 국민연금의 오랜 과제이기도 하다. 2050년 남녀 평균수명이 85세와 90세로 2년 연장될 경우 연금 소진 시기가 기존 2058년에서 2056년으로 2년 앞당겨질 것이란 분석이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금융위원장을 역임하고 2009년 공단 이사장에 취임한 전광우 이사장을 초빙하여 지난해 기금 운용 실적을 알아보고, 다양한 서비스 개선을 통한 국민적 신뢰 다지기 및 기금 규모에 걸맞은 글로벌 운용 전략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한국외국어대 아랍어과 졸업 | 한국외국어대 통역대학원 석사 | 이집트 카이로 아메리칸대학 정치학 석사 | 영국 옥스퍼드대 정치학 박사 | 옥스퍼드대 히브루-유태학센터 연구원 | 중앙일보 카이로 특파원

〈상훈〉 중앙일보 특별공로상

〈저서〉 인간의 땅, 글로벌에너지 중심지 중동, 두바이 CEO의 창조경영, 두바이: 무한 상상력과 창조적 리더십, 기자 아저씨 가 들려주는 이집트 이야기 외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 美 인디애나대 경제학 석사, 경영학 석사 | 미시간주립대 경영학과 교수 |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 경제부총리 특보 | 국제금융센터 소장 | 우리금융그룹 부회장 | 딜로이트 코리아 회장 | 포스코 이사회 의장 | 대한민국 국제금융대사 | 연세대 석좌교수 | 국제증권감독기구 아태지역위원회 위원장 | 금융위원회 위원장

■ 행복론 : 21세기 나의 인생 설계

제1684회 3월 17일(목) 롯데호텔(소공동) 3층 사파이어볼룸
오종남 서울대 과학기술혁신 최고과정 주임교수

먹는 것이 어렵던 시절에는 의식주만 풍요해지면 행복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먹는 문제보다는 사는 문제가 더 고민인 요즘, 예전에 비해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지만 공핍했던 때보다 행복해졌다고 자신 있게 말하기 어렵다.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됨에 따라 요즘 우리 사회에는 은퇴 후를 위한 투자대책과 인생설계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을 살면서 가져야 할 마음 자세다.

오종남 박사는 앞으로 우리 사회 행복의 기준을 '60세 이후의 삶이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으로 나눌 것이라고 말한다. 60세 이후를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질기고 모진' 삶이 찾아올 것이라고 진단한다. 그 어떤 나이대보다 노후의 행복이 중요하며 '참 행복'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한국인 최초로 IMF 상임이사를 역임한 오종남 서울대 기술혁신과정 교수를 초빙하여 경제발전과 삶의 질의 관계를 새롭게 조명하고, 장수를 축복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서울대 법학과 졸업 | 미 서던메소디스트대 경영학 석사, 경제학 박사 | 제17회 행정고시 합격 | 재정경제원 국제경제과장, 대외경제총괄과장 | 대통령비서실 정책, 건설교통, 산업통신과학, 재정경제비서관 | 제7대 통계청장

| 국제통화기금(IMF) 상임이사 |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 | 학교법인 서울현대학원 상임이사 |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이사

<상훈> 대통령표창 2회, 황조근정훈장

<저서> 한국인 당신의 미래, 은퇴 후 30년을 준비하라

■ 안중근의 하얼빈 의거와 동양평화사상

제1685회 3월 24일(목)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이태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2009년은 하얼빈 의거 100주년, 2010년은 안중근 의사 순국 100주년으로 최근 몇 년간 '의사 안중근'을 재조명하는 우리 사회의 열기가 뜨거웠다. 안중근 의사는 1909년부터 뤼순 감옥에서 수감생활을 하며 삶을 마감할 때까지 미완의 <동양평화론>을 저술하였다.

<동양평화론>에는 100년 앞을 내다본 동양의 미래상이 담겨 있다. 이는 오늘날 서구권 국가들의 힘의 결집체가 되고 있는 유럽연합(EU) 구상보다 70년이나 앞서있다. 그는 한중일 3국이 각각 독립을 유지하면서 상호 부조하는 길을 찾았고, 이를 통해 서세동점(西勢東漸)의 서구 제국주의를 막을 때 동양의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 한중일은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과는 너무나 다른 양상이다. 중국과 일본의 영토분쟁은 군사력까지 동원되어 치열해져 가고, 북한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이태진 국사편찬위원장을 초빙하여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와 그가 남긴 동양평화론의 민족자결, 자주, 독립사상을 통해 안중근 의사의 정신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이를 계승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서울대 사학과 졸업 | 서울대 사학 석사 |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 한국문화연구소장, 인문대학장, 명예교수 | 역사학회 회장 | 미국 하버드대 동아시아학과 방문교수 |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위원장 | 교육과학기술부 동북아역사재단 비상임이사 | 안중근하얼빈학회 공동회장

<상훈> 치암학술상, 제51회 3.1문화상 학술부문 수상

<저서> 고종시대의 재조명, 왕조의 유산, 유규장각 도서를 찾아서, 영원히 타오르는 불꽃 : 안중근의 하얼빈 의거와 동양평화론(공) 외

■ 뻔뻔(FUN FUN)한 서울, 서울을 부탁해!

제1686회 3월 31일(목)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조은희 서울시 정무부시장

맑고 매력있는 세계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세계적인 도시들과의 핵심 경쟁력이 중요한 시대, 서울시가 표방하는 '디자인 서울'은 다양한 볼거리가 가득하다. 눈에 보이는 것은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문화를 포함한다. 서울은 전통적인 동양의 미학을 보여줄 수 있는 장점들을 소프트웨어로써 부각시키고 다양한 축제와 관광 프로그램으로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려 전통과 첨단이 어우러진 문화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다.

서울시가 치열한 변화의 과정을 추진하고 있는 데는 지난해 7월 서울시 첫 여성 부시장으로 부임한 조은희 부시장의 노력이 큰 몫을 하고 있다. 조 부 시장은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을 맡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제도 및 문화개선을 직접 기획하고 시행한 공로로 UN 공공행정대상을 수상하는 등 세계적으로도 능력을 인정받았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조은희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초빙하여 '민생불편 제로 서울', '시민이 중심이 되는 행복한 도시 서울'에 대한 청사진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이화여대 영문과 졸업 | 서울대 국문학 석사 | 단국대 행정학 박사 | 경향신문 기자 | 청와대 행사기획비서관, 문화관광비서관 | 우먼타임스 편집국장, 편집위원장 | 한양대 행정대학원,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 | 연구공간 여성과 정책 대표 | (사)여성평등실현연합 공동대표 |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

<상훈> UN 공공행정대상

<저서> 한국의 퍼스트레이디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프로그램

매주 목요일 07:00~09:00

■ 웰니스와 신체활동

제1687회 4월 7일(목)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전태원 서울대 체육교육과 교수 / 톰 루트 호프스포츠 대표

사람은 누구나 오래 살기를 바란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생로병사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천하통일을 이룩한 진시황도 불로장생의 약초와 명약을 구하기 위해 소년, 소녀 3천을 동해로 보냈고 신선으로 하여금 영생의 비법을 써보았지만 50세의 짧은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건강하고 오래살기 위해서는 영양, 생활습관, 유전적 요인들이 필요하지만, 최근에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운동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여러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오래 전부터 운동이 최고의 보약이라는 말을 해왔지만, 운동이 질병을 예방하고 사망률을 낮춘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은 20세기 후반부터이고, 2008년에서야 미국 연방정부는 신체활동 지침을 발표하게 되었다.

신체활동을 꾸준히 하면 사람답게 살 수 있고(well-being), 건강하게 늙을 수 있고(wellaging), 건강하게 장수를 누리다가 고통 없이 죽음을 맞는(welldying) 상태를 이룰 수 있다. 전태원 교수는 이러한 최고의 건강한 상태를 웰니스로 정의하며, 이를 위해 매일 꾸준히 신체활동 또는 계획적인 운동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서울대 체육교육학과의 전태원 교수를 초빙하여 모든 인간이 꿈꾸는 장수를 위한 신체활동 지침을 들어보고, 톰 루트 대표로부터 시연을 통한 호프스포츠사의 집단 운동 프로그램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서울대 체육교육과 졸업 | 美 오레곤 주립대 석·박사 | 서울대 체육교육과 학과장, 체육연구소장, 체육부장, 학생부학장 | 생활체육지도자연수원 원장 | 대한스포츠위원회 상임위원 | 한국운동과학회 부회장 | 아시아운동과학회 회장 | 대한스포츠학회 부회장 | 한국운동생리학회 회장

〈저서〉 현대스포츠 시리즈8 체력육성(공), 파워 트레이닝(공), 운동으로 해결하자(공), Power 운동생리학(공), 스트레칭의 과학적 원리(공), 운동요법(공) 외

■ 다시, 산업단지에서 희망을 찾는다

제1688회 4월 14일(목)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박봉규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지난 2008년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제조업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금융위기 속에서도 빠른 경제회복과 성장을 이룩한 나라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제조업에 대한 투자와 육성을 게을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조업과 수출을 통해 국부를 창출해왔고 전국적으로 858곳의 산업단지가 조성되어있는 한국적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도 산업단지를 다시금 경제도약의 중심지로 재탄생시키는 노력을 기울일 때가 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단지가 기존의 단순 생산기지 기능에서 벗어나 기업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지원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해야 한다. 무분별한 신규 산업단지 개발보다는 기존의 산업단지를 활용해 일하기 좋은 근무환경을 갖추고, 낡은 인프라를 개선하는 한편,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구축, 문화와 복지기능 확충, 산학융합, 친환경 생태단지로의 전환 등 다양한 활력요소를 더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의 박봉규 이사장을 초빙하여 우리 경제의 중추 산업기반인 산업단지가 경제성장 과정에 기여한 역할과 모습을 재조명해보고, 우리 경제의 희망이 되어야 할 산업단지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발전전략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경북대 법학과 졸업 | 美 노스웨스턴대 경제학 석사 | 송실대 국제경영학 박사 | 제17회 행정고시 합격 |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 산업자원부 외국인투자지원실장, 국제협력투자심의관, 무역투자실장 외 | 한국산업기술재단 사무총장 | 한국공학교육학회 부회장 | 대구광역시 정무부시장

〈상훈〉 홍조근정훈장, 대통령표창 외
〈저서〉 체코의 시장개혁과정, 외국인투자정책이 기업의 투자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한러관계의 과거, 현재와 미래의 과제

제1689회 4월 21일(목)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콘스탄틴 브누코프 주한 러시아 대사

1990년 9월, 한러수교 이후 양국은 동북아시아의 평화 유지를 위한 상호 노력의 맥락에서 시작해 건설적인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이후 상호 신뢰하는 포괄적 협력관계를 거쳐 현재는 전략적 협력관계에 있다.

러시아는 한국의 중요한 비즈니스 파트너이다. 오늘날 러시아는 한국의 22대 수출상대국이며, 한국은 러시아의 13대 수출상대국이다. 2005년까지 적자를 기록했던 대러시아 무역수지는 러시아의 빠른 경제성장에 힘입어 2006년 흑자로 돌아섰다.

러시아는 성장잠재력, 거대한 내수시장, 중산층 확대에 따른 구매력 증가 등을 고려할 때 다른 브릭스 국가들과 함께 미국과 유럽을 보완하는 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원유와 천연가스 생산량은 각각 세계 1위와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에는 현대자동차의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 건설, 한러 합작 조선소, 연해주 내 여의도 면적 33배 크기의 영농단지 인수 등 우리 기업의 대규모 직접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향후 유라시아와 태평양의 관문으로써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는 러시아와의 경제협력력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본원이 한러친선협회를 통해 러시아와 친화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가운데, 2009년 10월 주한 러시아 대사로 부임해 한국과 러시아 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해 애쓰고 있는 콘스탄틴 브누코프 대사를 초빙하여 한러 관계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전망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모스크바 국립국제관계대 졸업(영어 및 중국어 전공) | 1973년 옛 소련 외교부 근무 시작 | 駐중국 소련대사관 근무 | 駐인도 소련 대사관 참사관 | 駐중국 러시아대사관 근무 | 駐홍콩, 마카오 총영사 | 러시아 외무부 아주제1부국장

■ G2 국가로 급부상한 중국과 한반도의 미래

제1690회 4월 28일(목)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문정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1949년에는 사회주의만이 중국을 구할 수 있었고, 1979년에는 자본주의만이 중국을 구할 수 있었으나 1989년에는 중국만이 사회주의를 구할 수 있었고, 2009년에는 중국만이 자본주의를 구할 수 있다.”

중국의 위상을 웅변해주는 말이다. 지난 몇 해 동안 미국발 금융위기로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을 때 당당히 급부상한 나라가 바로 중국이다. 중국은 경제규모면에서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위이며, 매년 높은 경제성장률로 수출 세계 1위, 외환보유고 1위를 기록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더구나 우리 경제의 미래는 중국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은 이미 우리의 최대 교역국으로 등극했고, 우리 경제의 대중국 의존도는 높아만 가고 있다. 또 북한 핵문제는 물론 동북아의 전략적 안정을 구축하는데도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중국의 미래를 묻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묻는 것과 결코 다르지 않은 것이다. 중국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도 담보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제 중국은 '아니면 말고' 식으로 무시하거나 외면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 우리의 평화와 생존, 그리고 번영에 사활적 변수로 얽혀져 있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연세대 문정인 교수를 초빙하여 더욱 그 위상을 공고히 하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중국, 그야말로 중국굴기(中國崛起)의 시대를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연세대 철학과 졸업 | 미 메릴랜드대 정치학 석박사 |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통일연구원장, 국제대학원장, 현대 한국학연구소장 | 미국 켄터키대, 윌리엄스대 교수 | 미국 국제정치학회 부회장 | 대통령자문 동북아시아위원회 위원장 | 제주평화포럼 조직위원장 | 동아시아포럼(EAF) 조직위원장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위원 | 외교통상부 국제안보대사 | 미국 듀크대 아시아태평양연구소 겸임교수
<상훈> 미국 국제정치학회 최우수논문상, 미국 평화학술논문상, 미국 공공정책학술상
<저서> 국가정보론, 한반도 통일 핸드북, 동아시아의 전쟁과 평화(공), 중국의 내일을 묻다 외

Issue & Seminar 1

김진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위원회 위원장

1월 6일(목) 롯데호텔(소공동) 3층 사파이어볼룸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미래 희망과 도전

이 땅의 리더는 5년, 10년이 아니라 100년, 1000년을 내다보아야 한다. 또한 생각과 행위는 한반도와 동아시아를 넘어서 완전한 지구촌을 지향해야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통성, 정체성, 정당성에 대한 확신 위에서 일해야 한다.

왜 그럴까? 한국은 그 어느 제3세계 국가보다 더 큰 고통을 겪은 후에 탄생했다. 우선 일제의 식민지배는 다른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의 제3세계의 역사적 경험과 본질적 차이를 갖고 있다. 지리적, 문화적, 역사적으로 접촉이 없었던 서양 제국은 식민지의 지배층만 통치하면 됐다. 그러나 한반도의 조선은 백성부터 지배층까지 모두가 식민지배에 반대했기 때문에 말과 글, 이름까지 빼앗기는 가혹한 수탈과 억압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건국 과정에서 유엔이 관여했던 것도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특징 중 하나이다.



기적 같은 성공을 일군 대한민국

1945년 이후, 대한민국은 가히 혁명적인 성공을 이루었다. 1945년 이후 독립한 140여 개의 제3세계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근대화의 기준을 완벽하게 성취한 나라이다. 근대화를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수가 있다. 미국의 프리덤하우스는 국가별 정치자유와 시민자유를 평가해 '자유지수'를 7등급으로 나눠 발표한다. 1972년 한국은 '무자유국가'로 출발해 1983년 '자유국가'로 승급하고, 2004년 발표에서 완전한 '선진자유국가'로 올라섰다.

영국의 EIU(Economy Intelligence Unit)가 2010년 발표한 보고서는 한국의 민주화 지수를 20위로 분류했다. 1위는 노르웨이이고, 미국 19위, 일본 22위, 인도 40위, 중국이 136위이다.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언론자유 지수를 보면, 한국이 31위이다. 일본이 37위, 인도 40위, 싱가포르가 140위이다. 언론의 자유에 있어서도 한국이 아시아에서 최고이고, 1945년 이후 독립한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언론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이다.

근대경제성장 측면에서도 1945년 이후 독립한 국가 중 현재 1인당 1만 불 이상 국민소득을 올리는 나라는 한국, 쿠웨이트, UAE, 바레인, 싱가포르, 이스라엘 정도이다. 그러나 국민소득이 1만 불을 넘겼다 해도 민주화 지수가 낮은 나라가 대부분이다. EIU가 발표한 민주화 지수를 보면, 쿠웨이트 114위, 바레인 122위, UAE가 148위, 싱가포르가 82위이다. 한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유일한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육과 과학의 선진화에 있어서도 단연 앞서고 있다. 우선 대학생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다. 이미 미국과 캐나다를 추월했다. 이를 반영하듯 GDP 대비 공교육비가 7%에 이르고 있다. OECD 평균인 5.7%보다 높고, 여기에 사교육비를 합치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교육비를 지출하는 나라가 된다.

미국과 중국에 진출한 유학생 비율도 인구비례로 따지면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한국의 교육열은 좋게 말하면 좋은 교육열이고 나쁘게 보면 국가의 균형을 깨는 교육열이다. 이 균형을 맞추는 것이 우리 리더들이 고민해야 할 일이기도 하다.

GDP 대비 R&D 투자율이 3.57%이다. 선진국 후진국을 막론하고 GDP 대비 3%를 넘긴 나라는 핀란드, 스웨덴, 이스라엘, 한국뿐이다. 경제활동인구 1000명당 연구원 10명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해방 당시 대한민국 인구 2천만 명 중에서 박사 학위 소지자가 6명이었음을 감안하면 놀라운 수치다.

사회적 다양성 역시 비교 대상이 없다. 자국 역사상 정통 종교, 고전 종교를 가진 나라 중에서 기독교 인구가 30% 이상 되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다. 프랑스가 120년 가까이 지배했던 베트남도 10%가 안 된다. 우리보다 250년 전에 기독교가 전파된 일본도 현재 기독교 인구는 2%에 불과하다. 우리가 중국문화권을 이야기하지만 아무리 중국이 세계의 패권국가로 부상해도 우리나라의 이러한 사회적 다양성 때문에 중국문화권에 흡수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근대화의 세계화로 인한 새로운 생존조건

그야말로 한국은 지난 60년 동안 기적 같은 성공을 일구었다. 한국 역사의 의미로 혁명일 뿐 아니라 세계사적 관점에서 봐도 대한민국의 근대화는 혁명이다. 그렇다면 이 성공의 길을 그대로 가면 한국은 세계의 중심국가가 되고, 글로벌 코리아가 될까? 절대 그렇지 않다.

첫째, 두말할 것 없이 세상이 변했다. 근대화는 전기, 후기, 말기로 나눌 수 있는데, 한국의 성장 과정은 후기 근대화에 속한다. 영국을 시작으로 서구의 산업혁명이 성공한 1세대 산업화와 후발주자인 미국, 러시아, 일본이 등장한 2세대 산업화가 전기 근대화에 속한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4마리 용이 등장한 3세대 산업화를 후기 근대화라고 한다. 그리고 중국과 인도가 새로운 실력자로 등장하기 시작한 4세대 산업화가 말기 근대화에 속한다.

4세대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근대화의 세계화'라는 새로운 결과가 나타났다. 지구촌에 근대화 바람이 불지 않는 곳이 없다. 이것을 근대화의 세계화로 본다. 근대화의 세계화가 되면서 근대화는 종언을 고하게 됐다. 그야말로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문명, 새로운 세계질서, 새로운 생활양식의 등장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탱은 <새로운 민주주의를 향하여>라는 책을 통해서, 다니엘 벨은 <이데올로기의 종언>을 통해서 일찍이 전기 근대화와 후기 근대화의 차이를 분명히 드러냈다. 우리는 여기에서 후기 근대화와 말기 근대화의 차이를 인식해야 한다.

말기 근대화는 환경의 문제, 생명의 문제가 더 중요한 시대이다. 히말라야산맥 주변국인 중국과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의 인구는 30~40년 후에 약 40억 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이들이 미국, 일본, 한국처럼 도시의 빌딩에 살면서 자동차를 갖고, 쓰레기를 버리고, 현재와 같은 에너지를 소비한다면 과연 지구가 생존할 수 있을까?

이러한 문제가 저절로 드러나고 있다. 10년 전부터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비현실적인 이야기로 받아들여졌다. 10년 전 중국에 가면 자전거가 많다는 것에 깜짝 놀랐다. 그 많은 자전거들이 경차로만 바뀐다고 가정해보면 상황은 끔찍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전 세계 자동차는 현재 약 9억 대 정도이다. 지난 100년 동안 축적된 것이 이 정도이다. 그런데 중국이 한국 수준이 되면 4억 대, 일본 수준이 되면 9억 대, 미국 수준이 되면 13억 대가 필요하다. 이것이 현재 근대화의 세계화에서 오는 인류의 새로운 생존 조건이다.

그 어느 나라도, 그 어느 인권단체도 중국에게 세계의 공멸을 막기 위해서 자동차를 갖지 말라고 할 권리는 없다. 오히려 그들도 복지, 교육, 편리에서는 최소한의 근대화 기준을 충족시키면서도 에너지 가격을 내리든지 에너지 효율을 10~20배 늘리든지, 쓰레기처리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든지 아니면 쓰레기 배출량을 10~20배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황당한 일이 아니라 현실적인 대안이 나오지 않으면 그야말로 말기 근대화로 인류는 끝이 날 것이다.

환경문제, 생명의 문제 해결이 인류의 과제

지금 그것을 위해서 가고는 있다. 하지만 G20이나 IMF나 현재의 국제 정부기구로서는 각 나라마다 다른 국내 정치적 요인 때문에 절대로 지구촌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럼 지구촌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추진해야 할 주체는 누구인가. 불행하게도 선진국일 수가 없다. 모든 환경문제, 생명의 문제의 연원은 선진국에서 나오고 있다.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캐나다, 오스트리아 등에서 근대환경운동, 근대생명운동의 원천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대단한 아이러니요, 딜레마인 것이 이들 나라야말로 생명자원에 가장 여유가 있는 나라들이다. 환경소비가 많은 나라들 중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미국, 캐나다, 러시아,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영국 등은 모두 생명자원이 굉장히 높은 나라이다. 엄격히 말해 이들 나라는 생명자원을 수출하는 나라이다.

미국에는 잉여농산물이라는 개념이 있다. 잉여농산물을 원조로 주기도 한다. 1960년대 뉴욕에서 소위 자동차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세계 최대의 석유 수출 국가였다. 러시아도 마찬가지다. 러시아는 유럽의 최대 곡물 수출 국가요, 최대 곡물 생산 국가였다.

반면 인구 5000만 명이 안 되는 한국은 석유 수입이 미국, 중국, 일본 다음으로 많고,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6%에 달한다. 전체 수입 중에서 32.5%를 에너지 수입에 쓰고 있는 반면 에너지 자기개발율은 5.7%에 불과하다. 이탈리아, 스페인처럼 자국에서 에너지 생산이 안 되는 나라도 석유, 가스 등의 자기개발율이 이탈리아 48%, 스페인 62%, 일본 19%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CO₂ 배출량은 세계 9위로 영국, 프랑스, 인도네시아, 브라질보다 더 많다.

요컨대 에너지와 식량, 생명자원은 수입에 의존해도 괜찮다고 하는 시대는 지났다. 중국이 결국 세계제국이 될 수 없는 이유도 생명자원의 제약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냉전시대를 포함하더라도 미국, 영국, 소련은 모두 생명자원의 수출 국가였다. 때로는 무상으로 원조도 줬다.

그러나 중국은 그럴 여유가 전혀 없다. 전 세계에서 에너지와 식량을 수입해서 쓰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나라이다. 콩의 원산지는 원래 중국 만주 지역이었지만 1999년부터 세계 최대의 콩 수입국으로 전락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지금은 세계 콩 수입의 54%를 중국이 혼자 하고 있다.

근대화의 세계화에 들어선 우리를 비롯한 중국, 인도 등 히말라야권, 그리고 한국, 일본 등 생명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나라들이 어떻게 하면 국민들로 하여금 복지와 편리 등 근대적인 좋은 점을 모두 유지 하면서 생명자원을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소셜 거버넌스, 폴리틱 거버넌스, 이코노믹 거버넌스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고, 이 땅의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의 소비생활양식과 생활방식을 지구촌에 맞게 고쳐나갈 것인가. 이것이 인류의 절대 절명의 과제이다.

중국은 산림면적이 전 국토의 6%밖에 안 된다. 한국과 일본은 60%가 넘는다. 산림이 존재한다는 것이 생명의 원천이다. 그런 점에서 인도와 중국은 정말 불행한 자원빈국이다. 단순히 1인당 소득이 낮은 빈국이 아니라 생명자원이 부족한 국가들이다.

그럼 점이 동시에 근대화의 세계화와 더불어서 바로 중국문제건 인도 문제건 히말라야문제건 이것이 전 세계 선진국 후진국을 막론하고 인류에게 평화와 안전을 줄 수 있느냐, 공생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한국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글로벌 코리아 모델 제시하자

서울시립대 총장으로 일하던 15년 전, 서울시립대를 도시과학대학으로 전문화를 시도하면서 중국의 변화를 주시하자고 강조한 적이 있다. 당시 중국은 매년 미국 필라델피아와 같은 150만 규모의 중대형 도시가 12개씩 생겨날 것으로 전망되었다.

나는 시립대가 괜히 서울시에 지원금을 달라고 하지 말고, 도시과학대학으로 전문화하자고 주장했다. 그래서 중국에서 매년 생겨나는 도시 중에서 1~2개 도시만 맡아서 신도시의 아파트 건설, 물과 에너지 절약, 폐기물 처리, 다른 도시와의 차별화와 관련해 건설팀만 해주면 미래가 보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한국의 리더들에게도 제안하고 싶다. 우리가 중국으로 하여금 근대적인 안전과 평화를 보장하면서 에너지와 먹을거리를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 즉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그것이 '글로벌 코리아모델'이 되는 것이고, 중국을 구제하는 일일 뿐 아니라 한국을 구제하고 인류를 구제하는 길이 될 것이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한국의 리더들이 너무 성공에 도취돼서 자기 발을 이 땅에 디디지 않고 서양의 환상, 근대화의 환상에 빠져있다. 근대화는 말기 근대화, 근대화의 세계화와 더불어서 끝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대한민국의 기적 속에 파묻혀 있다.

이 기적을 이어서 명실공히 제3세계, 1945년 이후에 독립한 140여 개 국가 중에서 1등이라는 성공에 만족하지 말고, 이제부터 세계 인류의 새로운 말기 근대화를 넘는 탈근대(post modern), 초근대(trans modern) 과제들을 해결하는데 우리의 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우리는 근대화에 성공하면서 그럴만한 능력이 생겼다. 반드시 세계의 중심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제국 중심의 세계 중심이 아니라 인류의 평화와 생명을 만드는 중심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김세**





1 2



창립 36주년 기념 제1679회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새해 국정운영 주요방향



축사 무토 마사토시 주한 일본 대사

인간개발연구원이 창립 36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 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그 나라에 얼마나 많은 인재가 육성됐느냐에 달려있다. 일본과 한국은 자원의 혜택을 받지 못

했지만 훌륭한 인재로 나라를 발전시켜왔다. 그런 의미에서 인재개발이라는 대단히 중요한 사업을 36년에 걸쳐 이룩해온 인간개발연구원의 지금까지의 위업에 대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한국은 누가 봐도 놀라울 정도의 빠른 속도로 오늘날의 발전을 이룩해왔다. 그 과정에서 1990년대 후반 IMF 금융위기, 또 최근 리먼 브라더스 사태라는 큰 위기도 있었지만 그러한 위기도 경이적인 속도로 훌륭하게 극복했다. 이러한 일이 가능했던 것은 먼저 리더십에 의한 적절한 방침을 세우고 그러한 방침을 실천했다는 것과 함께 그 실천을 위한 많은 인재가 한국에서 육성됐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현재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글로벌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인재육성에 대한 수요도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한 가운데 인간개발연구원에 주어진 역할도 앞으로 점차 중요해질 것이다. 앞으로의 활동과 활약을 기대한다.



축사 마크 톨라 주한 미국 부대사

인간개발연구원 창립 3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975년 설립 이래 매주 목요일 조찬연구회를 개최해 왔다는 사실이 인상 깊다. 인간개발연구원은 개인이 각자의 잠재력을 완전히 달성하도록 동기부여하

는데 헌신했던 폴 마이어의 사업을 사명으로 이어가고 있다. 우리는 폴 마이어의 신념에 동참한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부 장관은 모든 사람이 신으로부터 받은 잠재력을 달성할 수 있는 세계를 구현하는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리더십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세계, 학계, 지역사회와 가정의 지도자로서 여러분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잠재력을 완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영감을 주는 중책을 맡고 있다. 오늘과 같은 조찬회, 세미나 등을 통해 인간개발연구원은 세계와 학계, 또 정부지도층에게 그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여러분들이 경제발전과 지방자치에 힘쓰며, 차세대 지도자 육성을 위해 땀 흘리는 것이 대한민국의 번영에 이바지하고 있다. 또한,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더 큰 역할을 함에 따라 인간개발연구원은 세계 모든 이들의 번영에 이바지하게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인간개발연구원은 더 좋은 사람이 더 좋은 세상을 만든다는 연구원의 신념을 달성해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지난 36년간 이룩한 많은 업적에 대해 캐슬린 스티븐슨 대사께서도 축하의 말씀을 꼭 전달해달라고 당부하셨다. 앞으로도 탄탄한 성공가도가 펼쳐지기를 기원한다.



1. 창립 36주년 축하케익 커팅
2. 창립기념 인사말 전하는 장만기 회장
3. 강연을 하고 있는 김황식 총리
4. 강연후담시간

최근 날씨가 풀려서 봄이 오가 했더니 다시 추워졌다. 봄이 쉽게 오지 않는 모양이다. 나라의 발전도 그와 같이 한걸음에 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우리가 묵묵히 참고 견디면 봄이 오듯이 나라 발전도 참고 견디면 이루어지리라 생각한다.

2011년 국운 융성의 호기 맞은 해

지난 2년간 온 국민이 힘을 합쳐서 전대미문의 글로벌 경제위기를 세계 어느 나라보다 신속하게 극복해냈다. 지난해에는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더불어 경제성장률 6.1%, 1인당 국민소득 2만 불 시대 재진입, 그리고 세계 7대 수출국으로 도약했다. 무역흑자도 사상 처음으로 400억 불 이상을 달성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으로는 아쉬운 점도 많았다. 북한의 천안함 피격, 연평도 도발로 인해서 우리의 소중한 젊은 병사와 국민들이 희생당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로 인해 남북관계가 더욱 경색되는 어려운 국면이었다. 또한 세종시 수정안을 비롯해서 다양한 사회적 이슈들이 사회전반에 걸쳐서 갈등과 대립을 가져온 부끄러운 한 해였다.

그러나 올 한 해를 보면 지난해 이후로 놀라운 경제성장률과 높아진 국가 위상 등 최근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상 우리나라는 노력하기에 따라서는 제대로 발전할 수 있는 국운 융성의 호기를 맞았다고 할 수 있다.

지난 연말과 연초에 걸쳐서 브라질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뒤 인근 파라과이, 우루과이, 스페인 등을 경유하는 해외일정을 소화했다. 그곳에서의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국내에서 자부심을 갖는 것 이상으로 높았다. 특히 좌파 성향의 정권에서 어떻게든 경제를 발전시켜 국민복을 기하려는 열정이 대단히 인상적이었다. 이제 이념의 좌우는 문제가 되지 않는 시대이다. 그런 점에서 이념적으로 매몰되어 있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이념적 수렁에서 벗어나 어떻게 하면 실용적으로 국가를 발전시킬 것인가를 깊이 고민해야 한다.

특히 급변하는 많은 도전과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해이다. 외교안보 측면에

서는 북한의 내부권력 세습 및 북핵문제, 국지적 도발 위험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불확실성이 상당시간 지속될 것이다. 경제적으로는 물가불안 및 원유 등 국제 원자재값 상승,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적 불안정성과 가계부채의 증가 등 위험요소가 산적해 있다. 사회적으로는 저출산 고령화 추세에 대응한 복지, 고용 분야 등의 산적한 과제, 소득격차 확대에 따른 계층 갈등 문제, 자살, 낙태 등 모든 사회적 위험요인들이 지속되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내년 총선, 대선을 둘러싼 조기 선거 정국진입에 따른 정쟁 격화와 포퓰리즘이 극성을 부릴 한 해가 예상된다.

특히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동남권 신공항, LH공사 분사 이전 등 지역갈등 현안이 지역정치와 연계되어서 갈등이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규제역, 물가불안, 전세대란 등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도 도사리고 있다. 총리로서 열성을 다해서 이 문제들을 하나씩 차분히 풀어나가고, 우리에게 주어진 국운 융성의 기회를 잘 살려나가도록 하겠다.

새해 국정화두는 공정사회 구현

대통령을 보좌해 국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올해 가장 관심을 갖는 분야가 공정사회의 구현이다. 한국은 짧은 시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하다 보니 개선할 점이 많다. 압축성장 과정에서 나온 결과지상주의, 승자독식, 편법과 반칙 등의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바로잡아야 선진일류국가에 진입할 수 있다.

총리에 취임하자마자 정부부처, 각종 연구기관, 시민단체, 국민제안 등을 통해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모아서 5대 분야에 걸쳐 80여 개 구체적인 과제를 수립했다. 5대 분야는 첫째, 공정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서 공정사회를 이루겠다. 둘째,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합리한 차별

을 시정하겠다. 셋째, 편법을 배제하고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하는 사회를 만들겠다. 넷째, 약자를 배려하고 재기의 기회를 보장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겠다. 다섯째, 건전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겠다 등이다. 아울러 G20 정상회의 이후 폭격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대한민국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금년 역점을 둘 분야는 사소한 것 같지만 중요한 과제로 공적개발원조(ODA)의 체계화와 선진화 문제이다. 높아진 국격에 걸맞게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을 계기로 총리실에서 이 일을 직접 챙길 것이다.

대한민국은 해방 이후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발전한 유일한 국가이다. 따라서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GNI 대비 0.1% 수준에 머물러 있는 기여율을 2015년까지 0.25%로 높일 계획이다. 지난해 ODA 예산이 1조 3천억 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조 6천억 원으로 늘렸다. 유상원조 60~70%, 무상원조 30~40%의 비율도 점차적으로 역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외교교통상부와 기획재정부로 나뉘어 있는 원조업무를 총리실에서 통합 조정할 것이다.

특히 원조는 근시안적 단기 이해나 물질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고기를 잡는 법을 전수하는데 노력하려고 한다. 또한 두 손으로 정성을 모아서 주는 각듯한 원조를 하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세계를 향해서 고마움을 잊지 않는 나라로 자리매김해 나갈 것이다. 지난해 6.25 60주년을 기념해 참전국에 감사광고와 감사편지를 보낸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FTA, 우리의 경제영토 넓히는 첨병 역할

개방된 세계국가를 지향해나가는 것 또한 과제이다. 우리나라는 무역에 GDP의 80% 이상을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시장의 개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FTA는 우리의 경제영토를 넓히는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은 2004년 페루와 FTA를 체결한 이후 지금까지 16개국과 FTA가 발효돼서 시행되고 있고, 29개국과 FTA가 타결돼 마지막 절차를 진행 중이다. 현재도 뉴질랜드, 콜롬비아, 터키 등과 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앞으로 중국, 일본과도 결국 손을 잡아야 한다.

실제 FTA가 체결된 나라의 수출 증가율이 그렇지 않은 나라보다 2.2배 높다. 특히 칠레의 경우는 지난 6년 동안 수출이 5배나 늘었다. 국민들도 FTA를 찬성하는 국민이 반대하는 국민보다 두 배나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FTA는 우리로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FTA 문제를 가지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을 벌이고 있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정부로서는 금년에 이 문제를 국민의 공감대를 기반으로 해서 원만하게 비준 절차를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한미 FTA 추가협상과 관련해서 현재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 그러나 추가협상은 상호주의 원칙을 견지하는 가운데 양국이 서로 양보하고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균형을 맞춘 협상이었다.

특히 자동차 완성차 수출시 관세 철폐가 4년 유예된 것과 관련해 한국이 불리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완성차 수출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 현지에 우리 자동차 공장이 많



이 생겼기 때문에 완성차 수출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대신 FTA 발효 시 관세가 즉각 철폐되는 자동차 부품의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내 우리 자동차 공장에서 국내 부품을 관세 없이 수입해 자동차를 완성한 다음 미국 시장에 팔면 도리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자동차 부품 생산은 국내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비준과 발효가 빠를수록 좋을 것이다. G2시대를 맞아 중국과의 관계가 소홀한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데, 한중간의 다각적인 협력과 상호이해를 강화할 노력도 해나갈 것이다. 중국은 우리의 제1의 교역, 투자, 무역역자 및 인적교류 대상국이다. 또 북핵과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영향력을 가진 나라인 만큼 금년에 정부가 해야 할 주요 업무 중 하나이다.

우리 사회는 결혼, 이민 등 다문화 가정과 이주 근로자 증가 등 다문화 사회로 발전하고 있다. 세계화 시대에 단일민족국가로 유지해온 우리나라가 개방된 다문화 사회로 발전해나가기로 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의식전환 등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다문화 가족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따뜻하게 품고, 그들을 배려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품격을 높이고, 우리 사회를 통합의 길로 이끄는 길이 될 것이다.

미래세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나갈 것이다. 앞으로 우리나라를 젊어지고 나갈 젊은 세대가 창의와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취업과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해외 네트워크 활성화, 해외 취업 지원 추진체계 확충 등 G20 세대의 해외취업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곧 발표할 생각이다. 창의적인 인재를 개발하는 일 등에도 앞장설 것이다.

‘청설(靑雪)’의 마음으로 국민의 소리 들을 것

총리로서 사회와 정부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 그런 내 머릿속에 늘 떠오르는 4개의 단어가 있는데, 공정, 품격, 배려, 염치가 바로 그것이다. 그 중에서도 내가 바라는 것은 ‘염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3가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법과 원칙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 둘째, 소통과 통합을 추구해야 한다. 셋째, 나눔과 배려의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법과 원칙의 문제는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기본 전제의 문제다. 우리 사회의 법과 원칙이 허물어지기 때문에 혼란과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약자를 배려하고 돕는 과정에도 원칙과 기준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조금만 노력한다면 선진일류국가, 민주복지국가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총리로서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 많은 이야기를 들으려고 한다. 그리고 그것을 국정에 반영하려고 한다. 일본 대사님이 축사를 하셨는데, 문득 일본의 고메이 천황이 떠올랐다. 어느 책을 보니까 고메이천황은 궁

원에 다정(茶亭)을 짓고, ‘청설(靑雪)’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눈이 내릴 때 나는 소리는 잘 들리지 않지만 마음을 비우면 굉장히 크게 들리는 경험을 한 적이 있다. 국민의 없는 듯 한 소리를 잘 듣고 그것을 국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강연후담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 STX에너지 회장



김항식 총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난해 우리가 많은 일을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G20 정상회의 성공 개최,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진 속에서도 6.1% 성장, 수출 세계 7위 달성, 수출규모 28.5% 상승 등이다. 또 고유가 속에서도

무역역자 417억 불 달성, 32만 명 신규채용 등의 성과도 있었다.

올해도 연초부터 중동발 세계경제, 정치 불안으로 유가가 100불을 넘어서고 있다. 또 곡물을 중심으로 한 원자재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국제무역불균형을 우려해서 환율도 불안한 상태이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5% 성장과 3%의 물가안정, 28만 명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 공정사회 구현이라는 이름으로 총리께서 말씀하신 5개 분야의 구체적 과제를 달성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내가 맡고 있는 노사분야에서도 작년에 그동안 숙제로 미뤄왔던 노조 전임제 임금지급 금지가 타임오프와 함께 안착되고 있다. 작년에는 산업현장의 노사분규가 86건으로 역사 이래로 가장 적었다. 올해는 복수 노조 실시라는 실험을 하고 있다.

우리 경제는 어려운 가운데도 압축성장을 이루어왔다. 밖에서 바라보는 한국은 우리 스스로 안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높게 평가되고 있다. 1964년 우리나라가 1억 불 수출을 했을 때, 같이 1억 불 수출 테이프를 끊은 나라가 에티오피아와 모잠비크였다. 이들 나라의 작년 수출은 50억 불 내외이다. 우리는 올해 5천억 불 수출을 달성하고 1조 불 무역시대를 계획하고 있다.

그만큼 우리 경제는 빠른 성장을 했고, 대외의존형 성장을 했다. 이런 나라에서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고, G20 정상회의 이후에 개방적 통상국가를 지향한다는 총리의 말씀은 적절한 국정철학이다. 일부 우려와 반대가 있지만 우리 모두가 동참해야 할 국정철학이다.

총리가 말씀하신대로 공정과 품격, 배려, 그 중에서도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법과 원칙이 중시되는 사회, 또 소통하는 사회가 된다면 국제여건이 어렵더라도 우리는 할 수 있다. 오늘 이 모임을 계기로 인간개발연구원이 지향하는 새천년 새인간 새세계에 동참하면서 올 한 해 어려움을 극복해나갔으면 좋겠다.

강연후담 임관빈 국방대학교 총장



오늘 내게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은 군대가 나라를 좀 더 확고히 지키고, 강한 군대가 되라는 격려의 의미가 있는 것 같다. 군대가 나라를 확고히 지키기 위해서는 적과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강한 군대가 되어야 한다. 강한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무기체계, 철저한 훈련, 똑똑한 장교, 그리고 전투의지가 강한 단결된 부대가 되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가 사람이다. 똑똑한 장교가 가장 중요한 전승의 요소이다. 장교가 똑똑하면 다른 요소들이 부족해도 보완할 수 있지만 장교가 똑똑하지 못하면 다른 것이 아무리 훌륭해도 무용지물이다.

군대가 필요로 하는 똑똑한 장교는 지식과 인격을 함께 갖춘 장교이다. 군인은 단순히 군사지식만 훌륭해서는 안 된다. 인간과 사회, 그리고 21세기적인 환경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함께 갖추어야 훌륭한 장교가 될 수 있다. 또 무력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부하들이 진실로 믿고 따를 수 있는 존경과 신뢰를 받는 고매한 인격을 함께 갖추어야 한다.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군인과 공직자는 능력이 뛰어나야 하지만 그에 앞서서 공직을 올바르게 수행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그런 자세를 갖추기 위한 인격적인 요소가 먼저 갖추어져야 한다.

군인과 공직자는 확고한 국가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4가지의 인격적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첫째, 정의감과 도덕성을 바탕으로 바르게 사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둘째, 소외되고 그늘진 곳을 잊지 않는 더불어 사는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셋째, 국민과 부하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들을 받들 줄 아는 겸손과 포용의 덕을 가져야 한다. 넷째, 공직은 나라에 의해서 쓰여 지는 것이다. 나라가 나를 쓸 때는 신명을 다 바쳐서 헌신하지만 그 쓰임이 끝날 때는 언제 어떤 지위에서든지 기꺼이 자연인으로 돌아갈 줄 아는 공직관을 가진 사람이 돼야 한다.

오늘 아침 총리의 말씀과 그동안의 공직생활을 통해 보여준 모습을 국방대 학생들에게도 전수해 이 나라를 확고히 지키고 이끌어 갈 고급인재를 육성해야겠다는 사명감을 다시 한 번 느낀다.



클로징 리마크 조순 前 경제부총리 / 인간개발연구원 명예회장



총리의 말씀 중에 동감하는 몇 가지가 있다. 첫째, 앞으로 국정운영에 있어 어떤 이념,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지 않겠다는 부분이다. 이제는 어떤 이념이라는 것이 없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자기 나라

의 실정에 맞는 방향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면 된다.

둘째, 경제만 가지고 국정운영을 하지 않겠다는 말에 공감한다. 나도 경제학자이지만 이제는 경제운영 방향도 경제이론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사회, 정치, 외교, 안보 등 전체와 관련해서 경제의 위치를 찾아야 한다.

셋째, 이 자리에 와서 많은 말을 하기 보다는 좋은 말을 듣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다. 적절한 이야기다. 잘 들어야 한다. 잘 듣자면 고통이 따르겠지만 열린 마음으로 많이 듣고 여러 의견을 잘 반영해주기 바란다. 옛날 한나라 신하 급암이 ‘폐하의 얼굴이 야위었다’고 말하자 무제가 ‘그래도 백성은 살찌지 않았느냐’고 답했다. 이것이 바로 국정을 담당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다.

방파제 없는 항구 만들어선 안 돼

나는 어떤 정책이든 무조건 찬성하거나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는다. 모든 정책은 음과 양이 있기 마련이고 손해 보는 사람과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좋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의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하는 것이 정책이다.

FTA 문제 역시 마찬가지이다. 총리께서는 FTA를 하면 우리의 수출이 늘어난다는 점을 강조했다. 관세가 없어져 수출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수출 증가와 동시에 수입도 증가한다. 수출입 증가에 따라 무역에 관련된 사람들은 이익을 볼 것이다. 그러나 그로 인해 입지가 좁아지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단순히 경제적 이익만이 아니라 FTA가 확대되면 될수록 관세조정과 투자규제 등 대외경제정책의 여지가 좁아질 것이다. 대외경제정책의 여지를 남겨두는 선에서 FTA를 생각하는 게 어떨까?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말이 있다. FTA가 그렇게 좋은 것이라면 왜 미국과 일본,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한국처럼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을까?

손님에게 내 집 사랑방뿐 아니라 안방과 서재까지 내어주는 것은 곤란하다. 문을 잠가야 할 때는 잠가야 나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다. 마찬가지로 FTA가 너무 지나치면 방파제 없는 항구가 된다. 방파제가 있어야 파도를 막을 수 있다. 앞으로 국정수행 과정에서 외람되지만 이 점을 감안해주길 바란다. **김재민**



인간혁명의 시대, 변해야 산다

‘모든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 그러나 너그러우신 창조주는 모든 사람에게 변화력을 풍부하게 부여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킬 힘을 가지고 있으며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다’ 자기개발과 리더십의 대가로 존경 받는 폴 J. 마이어가 깨달은 진리이다.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발표하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지 100년 세월이 훨씬 지났다. 21세기에 들어선 지도 10년이 훌쩍 지난 세계는 진화론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2010년 12월, 아프리카 튀니지에서 점화된 독재에 대한 반체제 시위가 이집트, 예멘, 바레인, 리비아로 옮겨붙어 혁명의 불길에 치솟고 있다.

튀니지나 이집트에서 혁명의 불길을 일으킨 휴대전화 신제품이나 새로운 법안, 세계 금융 재난을 일으킨 모기지 신상품을 만드는 데는 몇 주 몇 달의 짧은 시간이면 된다. 인간게놈, 연료전지 같은 과학적 발견, 발명도 과거에 비하면 놀랍도록 빠르게 이루어진다.

하지만 이것이 문제다. 모든 변화를 일으키는 원점은 인간이다. 그런데 이 모든 변화의 새 정보를 처리해야 할 인간, 더 정확히 말하자면 정보처리를 해야 할 인간의 뇌(Brain)는 진화하는데 수백만 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인간의 뇌는 세상의 변화 속도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생물학적인 악전고투를 하고 있다고 사회생물학자인 레베카 코스타는 밝히고 있다. 이른바 복잡성의 세계가 도래하여 오늘의 인류사회를 예상 밖의 수많은 과제로 어려움을 증가시키고 있다.

복잡성의 증가는 현대사회에 국한된 현상만은 아니다. 코스타의 저서 <지금 경계선에서>에 기술된 바에 의하면 BC 6000년에서 AD 900년 사이, 과거의 로마, 오늘의 미국처럼 크게 번성했던 마야문명은 정교한 역법(曆法)을 발명했고, 수학에 제로(0)이라는 개념을 도입했으며, 운하, 댐, 제방을 건설해 물을 다스리기도 했다. 하지만 고도문명을 건설했던 마야인들은 1100여년 전 지구상에서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마야문명을 연구한 학설에 의하면 극심한 가뭄이나 얼마 전 중국을 휩쓸었던 사스와 지금 한국에 붙어 닳친 조류독감, 구제역과 같은 바이러스 역습이 갑작스럽게 멸종시켰을 것이라는 학설과 파벌 간의 내전으로 몰락했을 것이라는 설 등이 있다.

코스타는 진화에 초점을 맞추어 인간행동의 유전적 기원을 탐구하고, 느리게 진행되는 인간의 진화와 빠른 사회발전 간의 격차가 답보상태와 쇠퇴를 불러왔다고 주장한다. 마야문명이 최후에 직면했던 기후변화, 식량부족, 바이러스의 역습, 인구증가 등의 문제들이 그 사회가 감당하고 풀 수 없을 만큼 복잡했다는 것이다.

인류역사를 통해서 마야, 로마, 이집트, 크메르, 명나라, 비잔틴왕국의 붕괴현상에 어떤 틀이 있다면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세계적인 위기현상에도 그 유사성이 있지 않을까? 특히 지식정보통신혁명이 몰고 온 변화를 읽지 못한 독재국가들이 몰락의 궤도로 나아가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다. 붕괴위기에 직면한 북한사회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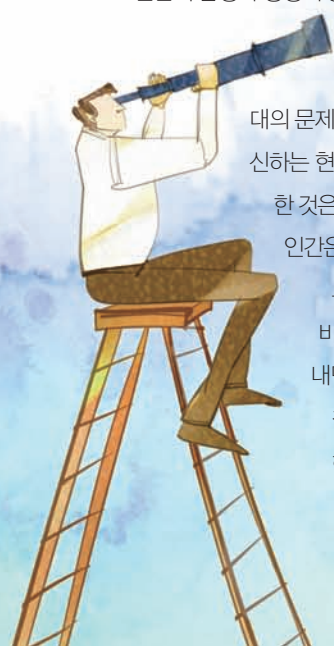
호모 사피엔스로 출발한 인류는 인류 창조 이후 동굴시대, 유목시대, 농업시대, 산업시대, 지식정보시대를 혁명적으로 거쳐 오는 가운데, 현재는 인간의 감성과 영성이 중요시되는 영성의 시대, 이른바 ‘지혜의 혁명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새로운 인간혁명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마야문명의 몰락이 말해주듯 인류문명이 몰락하는 초기 징후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 처음에는 정체상태가 나타나는데, 크고 복잡한 문제에 직면하고도 과거에 단순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했던 방식을 고집한다. 그럼으로써 현대의 문제가 다음 세대로 넘어 간다. 오늘의 북한 사회처럼 말이다. 두 번째 징후는 상황이 더 악화되면서 믿음이 지식과 사실을 대신하는 현상을 보인다. 역사적으로 인간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수 없을 때 사실 대신 믿음에 매달리곤 했다. 신앙의 위력을 무시한 것은 아니지만 맹목적인 신앙은 우상처럼 위험한 것이다.

인간은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현대 과학기술은 인간의 위대한 힘을 과학적으로 밝히고 있다.

그렇다. 세계의 미래는 인간에게 달려있고, 인간의 미래는 인간개발(TPT), 즉 인간교육에 달려있다. 모든 사람이 세계를 바꿀 수는 없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세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자여 먼저 자기 자신을 지배하라’고 했듯이 모든 사람은 자기 내면에 잠자고 있는 위대한 인간의 힘을 깨닫고 개발하고 목적달성에 활용하면 세계도 능히 바꿀 수 있다.

참사람을 살리는 인간의 지혜를 닦고 이를 바탕으로 자기완성의 교육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 인간혁명시대를 열어갈 지혜의 혁명이다. 우리는 변해야 산다. 그렇지 않으면 마야문명, 크메르문명처럼 돌연히 사라지고 말 것이다. **장만기**



Win-Win 커뮤니케이션을 완성하는 미디어스피치

CEO 미디어 스피치 3기 수료



우리는 말 한 마디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그 중에서도 우리 사회의 리더 역할을 하는 CEO들의 스피치는 이 시대를 이끄는 더욱 강력한 정신이며 소통의 도구이다. 인간개발연구원과 봄온커뮤니케이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소통의 방식으로서 Win-Win의 커뮤니케이션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런 리더들이 많아지기를 꿈꾼다. 소수정예 스피치 코칭으로 CEO들의 2% 부족한 자신감을 완성시키고 있는 CEO 미디어 스피치 3기 과정에서 교육 취지에 맞는 멋진 스피치를 보여주었던 두 명의 인터뷰를 통해 과정을 소개한다.

2011 CEO 미디어 스피치 과정

■ 일 시:

기수	일정	시간
4기	3월 14일 ~ 4월 11일	매주 월요일 □ 오후 3시~6시 □ 오후 7시~10시
5기	5월 2일 ~ 5월 30일	
6기	6월 13일 ~ 7월 11일	
7기	8월 22일 ~ 9월 26일	
8기	10월 17일 ~ 11월 21일	

- 장 소: 봄온커뮤니케이션(서울시 마포구 노고산동 40-1 적암빌딩 6층)
- 대 상: 12명(기업의 CEO 및 임원, 그리고 전문직업인)

■ 특 징: 최고 리더를 위한 1:1 맞춤 스피치 교육

시각언어, 음성언어, 미디어 언어를 통합한 멀티스피치의 영상 실습
매 강의 시 동영상 녹화 실습과 모니터링을 통한 피드백
최고 지도자의 전략적 스피치 구현(방송인터뷰 출연, 미디어 위기 대처 Speech)

■ 교육비: 인간개발연구원 회원 170만 원 / 예비회원 200만 원

※ 부가세면세

■ 진행순서: ① 주제강연 ② 방송실습녹화 ③ 녹화영상 모니터링 및 피드백

■ 문의: 인간개발연구원 민선아 과장(Tel. 02-445-1948)

봄온커뮤니케이션institute 강창진 강사(Tel.02-706-5144)

“항상 있는 그대로, 진심을 담아서 말합니다”

심기석(주)세일이엔에스 대표이사

Q: 대화를 나눌 때 원칙이 있다면

저는 항상 있는 그대로 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하면 나중에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은 정확하게 해드리고 처리할 수 있는 기한도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약속한 사항은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해요.

또 하나, ‘안 된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기보다 ‘할 수 있다, 알아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작정 알아보죠. 처음부터 잘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모습을 보고 상대방은 저를 더욱 신뢰하더라고요.



Q: 어떤 계기로 미디어스피치를 지원하게 됐나요.

얼마 전에 호텔에서 간담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3백여 명 앞에서 인사를 드리게 됐어요. 준비도 전혀 하지 못했죠. 그래서 간단하게 인사를 했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조금 더 잘 말할 수 있었는데...’라는 아쉬움이 남더군요. 그 이후에도 수시로 인사말이나 건배사 제의를 받기 때문에 조리 있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에 지원했어요.

Q: 미디어스피치 교육을 받은 소감과 4기 교육생에 대한 당부의 말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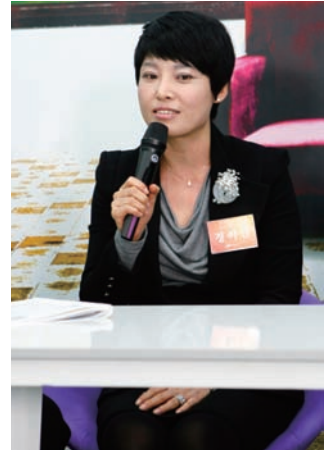
자신의 장단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고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유익했습니다. 처음에는 가기만 하면 다 이뤄질 것으로 생각해서 준비를 많이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준비를 해가니 수업효과가 더욱 높아지더라고요. 조금이라도 준비를 하면 더욱 알차게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다양한 예시를 들어 말해요”

정이안 정이안한의원 원장

Q: 언제부터 말씀을 하실 기회가 많아지셨나요.

2005년에 색깔음식에 대한 책을 내면서 많은 방송에 출연하고 강연을 하게 되면서 말을 많이 하게 됐어요. 지금은 대학강의와 대중강연, 또는 진료 시 환자분과 많은 대화를 나누죠. 환자분에게 증상에 대해 설명을 할 때는 주제를 먼저 이야기하고, 사례를 들어 표현해요. 남성분들에게는 자동차에 비유해서 설명해 드리면 이해를 잘 하시더라고요.




Q: CEO미디어스피치는 어떤 계기로 지원하게 됐나요.

저는 인간개발연구원의 소모임인 YCF(Young CEO Forum) 회장을 하면서 성연미 대표님께 젊은 CEO들에게 스피치 강연을 해 달라고 의뢰를 드렸었어요. 그러면서 저도 꼭 강의를 듣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CEO미디어스피치 저녁 7시 강의가 개설되면서 바로 등록을 했죠.

Q: 이번 교육을 받으시면서 느낀 점은

이론도 적절하고 개별적으로 실습이 많았다는 것이 좋았어요. 만약에 20~30명이었다면 개별적으로 점검이 어려웠을 거예요. 거의 1:1 코칭이 됐다는 것이 정말 좋았어요. 내 모습을 객관적으로 모니터를 통해 오랫동안 본 것은 처음이었다는 분들도 계셨어요. 하지만 너무 빨리 끝난 것은 아쉬웠어요. 이제 확실히 늘기 시작했거든요. 5주보다는 시간을 더 배정하면 좋겠습니다. 즐거웠기에 시간이 더 빠르게 느껴졌네요.

Q: 4기 교육생들에게 대한 당부의 말

저는 지금 당장 방송에 나가고 있어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입장이에요. 하지만 아직 방송에 자주 나가가지 않거나 공식석상에서 말씀을 많이 안하시는 분들이 더욱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CEO라면 공식석상에서 말씀을 많이 하실 거고, 그때의 CEO의 이미지가 곧 회사의 이미지일 텐데요. 이번 미디어스피치 4기 교육을 받으시면 훨씬 더 체계적이고 여유 있게 준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임스 최 스펙만 푸르덴셜생명(주) 회장

정리 · 정용달 홍보팀장 (dal2020@khd.or.kr)

지나온 다리는 불태우지 마라
가족사랑 인간사랑 실천하는
영원한 푸르덴셜맨



사진 오경근 원장

‘지나온 다리는 불태우지 마라’ 강을 다 건넜다고 지나온 다리를 불태워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살다 보면 분명 그 다리가 다시 필요할 때가 온다. 한 번 맺은 인연을 소중히 여기라는 말이다. 제임스 최 스펙만 푸르덴셜생명 회장이 인생의 성공 비결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는 한국전쟁으로 부모를 잃고 미국 가정에 입양된 후 글로벌 보험사의 최고경영자 자리에 오른 입지전적 인물이다. ‘보험은 단순히 보험상품을 파는 게 아니라 가족을 사랑하는 가장의 애정이 담긴 보장을 심어준다’고 믿는 스펙만 회장은 푸르덴셜의 강한 유전자가 몸속에 흐르는, 영원한 푸르덴셜맨으로 남고 싶어 한다.

경영에서 물러났다가 최근 다시 현장에 복귀한 스펙만 회장을 만나 역경의 인생스토리와 함께 보험산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대담 ·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지난해 11월 다시 국내로 복귀하셨는데요. 소감 먼저 말씀해주시죠.

스펙만 회장: 1993년, 당시 위기에 처한 회사를 살리라는 임무를 안고 사장에 취임해 나름의 성과를 올렸고, 그로 인해 푸르덴셜 국제보험그룹의 책임자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까지는 현장에서 물러나 고문 자격으로 회사에 조언을 해주는 입장이었는데, 작년 11월 황우진 사장이 미국 본사로 발령이 나면서 제가 다시 회장직을 맡게 된 겁니다. 푸르덴셜생명을 이끌어갈 새로운 대표가 선임될 때까지 라이프플래너(Life Planner) 활성화, 조직에 동기부여, 구조조정 등 푸르덴셜생명이 재도약하는데 있어 발판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책임감이 큼니다.

1989년 한국에 진출한 푸르덴셜은 한국 보험산업 발전을 선도해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간의 성과를 평가해주세요.

스펙만 회장: 푸르덴셜이 한국에 진출하면서 한국 보험시장에 끼친 긍정적인 효과들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으뜸으로 평가하고 싶은 것은 보험에 대한 인식을 바꿔놓았다는 겁니다. 푸르덴셜이 처음 영업을 시작했을 때, 한국의 보험시장은 주로 저축성 보험 일색이었죠. 엄밀히 말하면 제대로 된 보험이라기보다는 저축에 가까운 보험상품 일색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도 보험은 저축과 별반 차이가 없는 걸로 인식을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푸르덴셜은 초기부터 종신보험을 필두로 하는 보장성 보험을 국내에 선보였습니다. 이후 한국 보험시장에서도 많은 회사들이 보험의 기능에 충실한 상품들을 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파르타이머들이 부업으로 보험설계사를 하다 보니 전문성이 떨어져서 제대로 된 상품설명 없이 보험가입을 유지해 고객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푸르덴셜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한 남성들을 교육시켜서 라이



프플래너로 배출해냄으로써 전문 설계사 시대를 열었습니다. 당시 이런 시도는 업계에서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벤치마킹해서 너무나 일반적인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고객들이 제대로 된 보험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 할 수 있죠. 말씀드린 선진적인 보험서비스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국가고객만족도(NCSI) 7년 연속 1위도 달성했고, 유지율, 정착율, 지급여력비율, 우수인증설계사 비율, MDRT 비율, 불안전판매비율 등 객관적 지표에서도 계속 1위를 달성하면서 작지만 강한 보험사, 고객들이 신뢰하는 보험사로 자리매김한 것이 성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보험업계에서 푸르덴셜생명만의 경쟁력이라면 어떤 것입니까.

스펙만 회장: 보험업계 최고의 맨파워로 인정받는 라이프플래너와 강한 직업정신과 윤리의식을 갖춘 유능한 본사 Staff를 꼽을 수 있습니다. 푸르덴셜생명의 라이프플래너는 채용단계에서부터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자, 2년 이상의 직장 경력을 보유한 자, 그리고 타 보험사에 근무한 이력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채용을 진행합니다.



채용과정도 엄격해서 100명의 지원자 중 2~3명만이 라이프플래너로 위촉될 만큼 진입장벽이 높은 편이죠. 그래서 푸르덴셜은 라이프플래너를 '모집'한다고 하지 않고 '선발'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채용된 라이프플래너들은 1년간에 걸친 교육을 통해 최고의 보험전문가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러한 엄격한 채용과 교육과정은 그 내용에 차이는 있으나 본사 Staff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사 역시 여러 차례의 다각적인 면접과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채용 프로세스를 통해서 채용이 되는데, 이런 연유로 푸르덴셜은 까다롭게 사람을 채용하기로 유명합니다.

바로 이러한 인적자원이 푸르덴셜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죠. 아울러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재정안정계획은 우수한 인적자원의 서비스와 함께 고객만족을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꾸준한 고객 만족도도 푸르덴셜의 우수한 인적자원, 양질의 재정안정계획 서비스와 함께 지난 20여 년간 푸르덴셜생명이 보험업계를 선도해온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보험 판매 채널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대비하는 전략은 어떤 것입니까.

스팩만 회장: 보험을 판매하는 채널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지만 마케팅 트렌드 차원에서 판매 채널의 다각화를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푸르덴셜의 보험철학에 부합되고, 고객과 고객의 가정에 보험의 혜택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다면 그 방식에 대해서는 항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죠.

현재 푸르덴셜이 라이프플래너와 같은 대면채널만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대면채널을 통해서 고객에게 보험상품을 제대로 설명하고, 고객의 상황에 대한 다각도의 컨설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시장환경이 변하고 상품측면의 트렌드가 변화해도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은 고객이 보험의 필요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과 니즈에 부합하는 상품에 가입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보험이 필요한 시점에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보험업의 기본을 지킴으로써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한다는 것이 푸르덴셜생명의 전략

입니다. 구체적으로는 3Qs(Quality People, Quality Products, Quality Service)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과시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 푸르덴셜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천해야 하는 기본 가치죠. 3Qs 전략을 토대로 고객으로부터 가장 신뢰 받는 기업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고객의 변화하는 니즈에 부응하는 최고의 상품을 개발하고, 보험금 지급이라는 고객과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과 더불어 고객 최접점에 있는 라이프플래너에 대한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으로 기업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소개해주시죠.

스팩만 회장: 푸르덴셜생명엔 전국 단위의 중고생 봉사대회로는 국내 최초로 1999년부터 '푸르덴셜 전국 중고생자원봉사대회'를 주최하고 있습니다. 이 대회를 통해 전국 중고생들의 봉사활동을 장려하는 한편, 우수 봉사학생들을 발굴해 시상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13회를 맞는데 명실상부한 최고 권위의 자원봉사대회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울러 국내뿐만 아니라 푸르덴셜이 진출한 미국, 일본, 대만, 아일랜드 등에서도 시상하는 세계적인 대회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명보험회사라는 본업에 충실하고자 고객의 유자녀 중 현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금을 지원하는 '유자녀 장학금제도'를 도입해 2001년 이후로 현재까지 수백여 명의 유자녀에게 꾸준히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임직원들의 급여 일부분을 기부하는 급여 우수리제도, 봉사 마일리지제도, 사내 자원봉사자의 명의로 회사가 지정단체에 기부하는 볼런티어 그랜츠제도, 매년 10월 첫째 주 토요일에 전 세계 푸르덴셜 임직원이 봉사활동을 시행하는 글로벌 볼런티어 데이, 우리 사회의 조혈모세포 기증 활성화를 돕기 위한 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푸르덴셜생명은 이러한 사회공헌활동을 개별적 활동으로 그치지 않고 좀 더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

하기 위해 외국계 금융사로서는 드물게 2007년 3월, '푸르덴셜 사회공헌재단'을 설립해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단에서는 그간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아울러 푸르덴셜생명은 2002년 난치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삶의 희망과 기쁨을 주기 위해 소원을 들어주는 기관인 한국메이크어위시재단(Make A Wish) 설립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고, 지금까지 경제적 지원은 물론 전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봉사 참여에 이르기까지 물심양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회장님께서서는 25년간 은행에 계시다가 1993년 보험사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그동안 직장으로서 보험사의 매력을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스팩만 회장: 말씀하신대로 푸르덴셜에 오기 전에 저는 은행에서 25년간 근무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은행원으로서의 생활을 즐겼고, 괜찮은 대우도 받았으며, 일에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푸르덴셜로 자리를 옮기고 나서야 제가 중요한 무엇인가를 놓치고 살았음을 깨닫게 됐죠. 그리고 그런 깨달음은 제게 20년만 더 일찍 푸르덴셜로 옮겼더라면하는 아쉬움을 남깁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생명보험을 만들어낸 사람이야말로 노벨상 수상자 감입니다. 생명보험의 소중한 보장을 통해 가장 잃은 슬픔으로 힘들어하는 가정에 경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매일매일 우리가 힘이 되어주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노벨상조차 아깝지 않습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 보험업의 가치가 숨어 있습니다. '사람'에 초점을 두

“생명보험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비즈니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한 가정 한 가정을 위해
일하는 것 자체가 보험업의 매력입니다.”

“생명보험은 종이와 잉크로 만들어 내는
가족사랑과 인간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아름다운 기적입니다.”

는 산업, 그것이 바로 생명보험업이죠. 은행업에서는 서류 몇 장에 사인하는 것으로 몇억 원이라는 돈이 오고 가지만 거기에는 어떠한 인간적 만남도, 인간적 관여도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보험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비즈니스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한 가정 한 가정을 위해 일을 하죠. 이러한 업의 본질적인 측면 자체가 보험업의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글로벌 보험사에서 오랜 기간 다양한 경험을 하셨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한국의 보험산업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스팩만 회장: 20여 년 전의 한국 보험산업과 지금을 비교한다면 한국의 경제성장이 그러하듯 단기간에 정말로 급성장했습니다. 시장의 규모뿐만 아니라 상품, 고객서비스 등 많은 부분에서 세계적으로도 뒤쳐지지 않을 만큼 성장했죠.

1. 부인, 아들, 딸과 함께 2. 공군장교복무시절 3. 2002년 전국중고생자원봉사대회 4. 1회 전국중고생자원봉사대회 5. 임원들과 미팅하고 있는 스�팩만 회장 6. 국제보험본부 회장 취임





하지만 아직도 많은 회사들에서 과거 고객지향적이지 못한 관행이 남아있음을 종종 보게 됩니다. 푸르덴셜과 같이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세계적인 보험사들은 단순히 이윤 창출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보험업의 영위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업의 본질을 중시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그리고 큰 규모를 유지하며 존속할 수 있는 거죠. 업의 본질을 중시하는 문화가 대표이사부터 일선에서 고객들을 만나는 설계사들까지 공유될 때 세계에서 인정받는 국제적인 보험사가 나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회장님의 인생철학은 직원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 같습니다. 평소 직원들에게 강조하는 말씀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스팩만 회장: 라이프플래너와 관리직원을 포함한 본사 Staff에게 강조하는 부분이 다릅니다. 미국 공군 출신인 제 입장에서 볼 때 라이프플래너는 비행기를 조종하는 '파일럿'과 같습니다. 반면 본사 직원들과 매니저들은 라이프플래너를 후방에서 지원하는 정보장교 역할을 맡고 있죠. 라이프플래너에게는 '마음을 쏟으며 정직하게 고객을 생각하면 성공도 자연스럽게 뒤따른다'고 강조합니다. 12살부터 혼자였던 저는 어릴 때부터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저처럼 남의 도움을 많이 받은 사람은 때가 되면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라이프플래너는 하는 일 자체가 사회에 빛을 갚는 일이니 얼마나 좋습니까. 본사 직원과 매니저들에게는 '지나온 다리는 불태우지 마라'라는 말을 합니다. 인간관계를 중시하라는 얘기죠. 그 누구든 지금이 아니어도 다시 만날 수 있고 회사를 그만둔다고 해도 언젠가 다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자신과 만났던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 계신 모습을 보니 연세를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정정해 보

이십니다. 평소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스팩만 회장: 아무래도 현장에 복귀하니깐 일을 할 마음에 몸속 에너지도 더 충만해지는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를 위해 특별히 하는 것은 없어요. 다만 학창시절부터 테니스를 운동 삼아 즐겼는데, 그 때 기른 체력이 기본이 된 것 같습니다. 일선에서 물러난 뒤로는 일주일에 2~3회 골프 치고, 헬스장에 나가 운동하는 것으로 건강관리를 대신했죠. 이제는 업무상 평일 골프는 힘들고 주말에 가끔 나가는 정도가 됐지만 꾸준한 운동이 아무래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인간개발연구원이 창립 36주년을 맞았습니다. 각종 교육사업으로 평생학습의 장을 마련해온 인간개발연구원에 대한 평가와 제언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스팩만 회장: 인간의 잠재력은 우리 자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엄청나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인간은 일생동안 잠재력의 10% 정도 밖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해요. 잠재력은 어떤 도전을 받고 맞서서 싸우는 과정에서 더욱 발휘되기 마련인데, 그걸 교육을 통해 동기부여를 해줘야 합니다. 교육은 사람들에게 자기 삶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주고, 그로 인해 자신의 무한한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런 점에서 인간개발연구원은 개인이 가진 잠재력을 완전히 달성하도록 동기부여 하는 각종 교육사업을 지난 36년간 꾸준히 실천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사회가 또 경제가 지금의 발전을 이룩했음은 두말 할 필요가 없겠지요. 앞으로도 연구원의 활동이 사회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자양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 장시간 동안 좋은 말씀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 더욱 큰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제임스 최 스팍만 회장은...

하버드에서 그가 보낸 4년은 “제 교육의 큰 공백을 채워준 시간”이었다고 짐은 술회한다. “어떤 의미에서 저는 보통 미국 학생들과 반대로 살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대학을 마치고 사회에서 실제 인생을 경험하라고 배우지만, 저는 이미 입학하기 전에 사회생활을 했으니까요.” (중략)

내년에 짐은 콜롬비아대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원 생활을 시작한다. (중략) 샌프란시스코에 첫발을 내딛었던 열여섯 소년 시절에 비해서는 미국에서의 삶이 전보다 덜 장밋빛으로 느껴지긴 하지만, 여전히 짐이 미국에 감사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다. “그건 바로 기회라는 겁니다. 적어도 미국에선 가난한 사람도 대학에 갈 수 있잖아요.” 짐은 열정이 가득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다.

1962년 6월 13일, 하버드대학교의 졸업식 전날 <보스턴글로브>에 난 기사의 일부분이다. 경북 경주 출생으로 한국전쟁 때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소년. 그 후 미군부대에서 잡일을 돕던 소년은 미국으로 입양되었고, 그렇게 그는 '최석진'에서 '제임스 최 스팍만'으로 두 번째 삶을 시작했다.

1951년 당시 한국에서 근무하던 클라런스 스팍만 상사는 그를 양자로 삼았고, 1955년 12월, 열여섯 나이의 스팍만 회장은 너무나 공부하고 싶은 마음에 혈혈단신 삶의 무대를 미국으로 옮겼다. 그리고 험난한 가시밭길을 열심히, 한눈 팔지 않고 달려 미국에 간 지 2년 반 만에 하버드에 입학했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 미국 사회를 놀라게 했다.

두 번 태어난 사람

하버드 재학 시절, 그가 했던 아르바이트 중 하나가 학교 식당 입구의 잡화 가판대 운영이었다. “그 전 아르바이트로 학교 식당에서 접시 닦는 일을 했는데, 시끄러워서 일을 끝내고 나와도 그 소리가 따라다녔고 머리가 다 흔들릴 지경이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잡화 가판대 운영은 매력적인 일이었죠.” 그는 다른 학생을 고용해 임금을 주면서 모든 일을 직접 챙기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일하도록 만드는데 초점을 두었다. 그렇게 연말 총수익을 학교와 함께 절반씩 나누자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많은 이익이 남았다. “경영이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경제적 안목과 경영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제겐 첫 경영 수업이었던 셈이죠.”

푸르덴셜의 신화 이끈 주인공

스팍만 회장은 1968년 체이스맨해튼은행을 첫 직장으로 시작해 마린미들랜드은행, 홍콩상하이은행 등에서 25년간을 은행맨으로 살았다. 그리고 1993년, 푸르덴셜은 그를 한국푸르덴셜생명 사장으로 영입했다. 본사에서는 국제화의 첫 단추였던 일본 진출 성공에 힘입어 한국 진출을 계획했고, 그 적임자로 스팍만 회장을 꼽은 것이다. “푸르덴셜로 자리를 옮긴 결정적 계기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책임자인 사카구치 회장이 세계 '생명보험은 종이와 잉크로 만들어 내는 가족사랑과 인간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아름다운 기적입니다'라고 한 말 때문입니다.”

그 후 스팍만 회장은 미국 본사에서 철수까지 고려하던 한국푸르덴셜생명의 회생을 위해 새로운 방식의 라이프플래너를 뽑는 등 변화를 위한 행동에 나섰다. 개혁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고전을 면치 못하던 회사는 경쟁 보험사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정도로 성공가도를 달렸다. “기존 보험사가 실현하지 못하는 보험의 정신과 가치를 제대로 실현하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푸르덴셜의 신화가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2005년 6월, 고문으로 일선에서 물러날 때까지 그는 푸르덴셜생명보험 회장, 푸르덴셜 국제보험그룹 아시아지역 담당 책임자, 푸르덴셜 국제보험그룹 회장 등을 역임했다.

대학 졸업 후 4년 반 동안 미 공군장교로 생활했으며, 군 복무 시절에는 한국을 떠난 지 10여 년 만에 한국에 돌아와 2년 반 동안 근무하기도 했다. 군 복무 시절 아내를 만나 결혼했으며, 딸과 아들 두 자녀가 있다. **김재민**



1. 2002년 캘리포니아에서 국제보험본부 임원들과
2. 2002 일본 푸르덴셜타워 오픈
3. 역삼동 푸르덴셜타워 매매계약체결
4. 국제보험본부 행사에서 명예 EXLP로 위촉될 당시 사모님과
5. 졸업앨범_테니스부원들과 함께

우리가 서로 만나 꼭 해야 할 일

누구나 태어나서 한평생을 사는 동안 많은 사람을 만난다. 현대사회는 산골짜기 외딴집에 태어나서 화전을 일구며 농사짓고 혼자 살아도 사람은 서로 만나야 살아갈 수 있다. 사회적인 유대를 가지고 이웃과 더불어 살 수 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대부분 도시에 모여 사는 지금의 우리나라 생활방식은 본인이 원하던 원치 않든 사람과 만나서 접촉하며 살아야 한다. 그 과정에서 서로 상대방에게 배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며, 도움을 주고받으며 일정 기간 살다가 죽는 것이다.

사회적 유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숙명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연이거나 인연이 있거나 혈육처럼 숙명적으로, 서로 만나야 한다. 그 만남이 매우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다. 부모와의 만남을 비롯하여 형제나 일가친척의 만남이 제일 크게 영향을 미친다. 혈통을 통하여 유전인자를 받는 까닭에 지능지수나 체력, 외형이 모두 자기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주어진 조건으로 살게 마련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가문에 태어나면 상당한 프리미엄을 이미 받아서 좋은 조건으로 사는 셈이다.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 태어나 돈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이 있고, 좋은 머리를 유전인자로 받아 좋은 대학에 가고, 외모인 얼굴이 잘생겨서 남의 부러움을 받으며 살기도 한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미 저능아라는 유전인자로 태어나 일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 예를 들면 어느 가정에는 부모가 간 기능에 이상이 있어 전 가족이 간암으로 죽는 경우도 있다. 선천성 질환을 가지고 태어나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보아 왔다. 그렇지만 세상에는 좋지 않은 유전인자를 받아 약조건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와 같이 나쁜 운명을 개척하며 존경받고 잘 사는 사람도 많이 있다.

헬렌 켈러의 이야기는 너무 유명해서 전하는 것이 쑥스럽다. 박지성 선수는 평발이라 운동을 할 수없는 신체조건이라는 것을 알고 더욱 피나는 노력으로 이를 극복하였다. 마라톤의 이봉주 선수는 다리가 양쪽이 서로 다르고 눈을 뜨기 불편해도 유명한 감독을 만나 오히려 약조건을 극복하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고의 마라토너로 우뚝 섰다. 피겨 스케이트의 여왕 김연아 선수도 볼모지와 같은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코치를 만나 오늘의 영광을 얻은 것이다. 아시안 게임 수영의 영웅 박태환 선수는 광저우대회에서 다시 좋은 코치를 만나 전성기를 만들어 냈다.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동안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거나 남을 성공시키는 사람을 서로 만나야 한다.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도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의 뒤에는 반드시 훌륭한 멘토가 있게 마련이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남과



사람의 생각이 행복한 삶을 만든다.
 모든 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각을 바꾸자.
 사회의 일원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멘토를 키우는 일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자.



다른 악조건이 도사리고 있었지만 어느 순간에 방향을 잡아주고 거듭되는 교육과 반복훈련을 통하여 다듬고 연마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뚝 서는 사람으로 만든 예는 얼마든지 있다.

사회적 멘토를 키우는 일에 관심 가져야

주변을 돌아보면 참 좋은 만남이 있어 행복한 사람이 있고, 오히려 서로 만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것 같은 사람도 있다. 같은 직장이나 주변에서 보면 상대에게 받는 혜택이 많아도 작은 이유 하나로 서로 등을 돌리고 지낸다. 내가 받은 것을 기억하지 말고 내가 상대에게 무엇을 도와주었느냐를 먼저 생각하면 해답은 간단하다. 수없는 기억 속에 나쁜 기억만을 골라 되살리고 오히려 좋은 기억을 지워버리면 관계는 악화되게 마련이다.

사람의 생각이 행복한 삶을 만든다. 모든 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이제라도 사회의 일원으로서 훌륭한 역할을 할 사람을 사회 구석구석에서 키워내야 한다. 좋은 사람을 만들고 키우는 일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야 한다. 이것은 어느 특정계층이나 집단에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덕목이다.

만남과 선택, 그리고 주고받는 좋은 관계가 가정과 이웃과 직장과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보편의 가치로 여겨져야 한다. 이 일을 모든 사회지도층 인사와 정치인, 그리고 학교의 선생님과 대학교수와 강사가 해야 할 일이다. 사람을 만들고 가르쳐야 할 사명을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함께 명심했으면 좋겠다.

사람의 얼굴이 저마다 서로 다른 것처럼 생활방식도 모두 다르다. 그렇지만 적어도 한 번 사는 삶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지는 것이다. 대개 사람들은 자기에게 다른 사람들이 먼저 잘 대해주고 도와주기를 바라는 사람이 많다. 그 사람의 생각이 행복한 삶을 오히려 불행으로 바꾸어 버리는 경우도 많다. 주어진 감사를 모르고 상대에게 피해의식을 느낄 때 행복은 멀어지는 것이다.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멘토가 되어야 한다. 나는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고 무엇을 도와주고 있는지 한 번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김기현**



● **이보규 소장**

서울시립대 행정학 석사를 거쳐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수료했다. 서울시 국장 및 한강사업본부장을 역임했으며, 호서대 초빙교수, 용인대 산업정보대학 교수를 역임하고 현재 동서울대 교양과 외래교수로도 활동 중이다. <이보규와 행복디자인 21>이라는 책을 썼으며, 현재 공공기관, 기업체, 대학 등에서 자기성찰에서 얻은 경험과 신념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지혜를 일깨우는 강연활동을 펼치고 있다.



세계무대에서도 당당한 소통의 코드 〈와인 리더십〉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오른쪽),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가운데)과 미국 영부인 미셸 오바마(왼쪽)가 1월 19일 국민만찬을 위해 백악관에 도착했다.(AFP=연합뉴스)



미셸 오바마의 붉은 드레스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다. 귀한 손님을 맞이하거나 큰 행사 때 여주인이 어떤 옷을 입을지는 대단한 고민 중의 하나이다.

실리와 실용의 드레스코드

오성홍기(五星紅旗), 붉은 색은 중국에서 행운을 상징한다. 그녀의 드레스는 중국의 국기 색과 매칭을 이루면서 편안하고 안정감 있는 환대(Hospitality)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에 못지않게 후진타오 주석도 미국 국기 색인 푸른색 넥타이로 차원 높은 응대 매너를 보여준다.

미셸 오바마의 패션정치학은 이번에도 여지없이 세상의 주목을 받았다. 그녀는 중국 친화적 파티에서는 중국의 세계적인 디자이너 베라 왕의 드레스를 자주 입었다. 인도 방문 때는 나임 칸의 드레스를 입었으며, 대만 방문 때는 제임스 우의 드레스를 입었고, 남미 방문 때는 남미 출신 디자이너의 옷을 입어 패션을 통한 그녀의 정치적 메시지를 유감 없이 보여 주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영국의 디자이너인 알렉산더 맥퀸의 전통 드레스를 입었다. 화려한 전통과 역사적 권위를 자랑하는 중국문화에 대응하는 미셸 오바마의 센스 있고 자존심 있는 감성 표현이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귀한 자리에 중국의 마담 후진타오가 동반하지 않았을까? 거기에는 '두 나라 간의 정치적 견제의식이 바탕이 되지 않았을까?'하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당선 초기에 정치, 경제적 동반자로서 중국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중국을 방문할 때 미셸 오바마를 동반하지 않고 혼자 방문하였다.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의 대등한 국민방문이 아니라 실무적인 의미가 강한 Office State Visit였기 때문에 이번 방문도 그 답례방문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국가주석의 부부동반 방문인 State Visit 경우에는 최고 국민방문으로서 완벽한 사교만찬 접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실무자급 방문일 경우에는 서로에게 필요한 목적에만 초점을 두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많이 생략하여 진행된다. 배짱 좋은 후진타오 주석이 그 상황을 모를 리가 없다. 후진타오 주석은 2006년 부시 대

세계의 두 정상인 자리가 같이 했다. 역사적인 순간이다. 우리는 이 한 컷의 사진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상상을 할 수 있을까? 물론 자신의 관심분야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넓고 글로벌한 시야를 가진 사람들은 다양한 상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대국적 포용력을 가진 두 정상인 통 큰 리더십을 한눈에 볼 수 있다. 그야말로 세계를 움직이는 두 정상이다. 참여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지만, 자국의 이익을 위한 고수들의 포용과 배려, 실리와 실용의 리더십 코드를 읽을 수 있다.

일본의 유명한 와인 소믈리에 타사끼 산야는

“와인파티에서의 주인공은 와인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사람이다”라고 말한다.
와인전문가 소믈리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계적 문화적 소통의 도구로서
우리는 와인에 대해 알아야 한다.

이제는 기능이 아니라 전체를 아우르는 통섭적, 문화적 접근이어야 한다.



령 시절 백악관 방문 시 만찬연설에서 중국 최고의 시성 두보의 시 ‘월
巖(망악, 태산을 바라보고)’을 인용하여 오찬건배 답사를 한 적이 있다.

會當凌絕頂 (회당능절정, 반드시 정상에 높이 올라서)
一覽衆山小 (일람중산소, 주위의 작은 산들을 굽어보리라)

이런 건배사를 들은 부시 대통령의 심증을 헤아려 볼만하다. 그래서인
지 그 이후 후진타오의 방문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 이번 방문 만찬자리에서 중국의 피아니스트 랑랑이 연주한 ‘나의 조
국’은 한국전쟁 당시에 북한군과 함께 미국을 물리친 전승기념의 의미
가 담긴 반미감정이 강한 곡으로 미국과 한국에 대한 그들의 자만심을
그대로 표현한 연주곡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주를 허락한 미국
의 대국적 포용심도 대단하며, 당당하게 미국 국민들의 심장을 파고드
는 후진타오 주석의 뿌리 깊은 배포를 우리는 한눈에 볼 수 있다.

미셸 오바마는 한쪽 어깨를 내린 붉은 드레스로 그를 대우하고 있다.
“오늘밤 당신은 제가 상대해 드리겠습니다”라는 메시지로써 오바마 대
통령을 후진타오의 동격이 아니라 한 단계 격상시킨다는 의미를 내포
하고 있다.

그들은 그렇게 말없이 유쾌한 소통을 나누고 있다. 진검승부, 서로 비
껴가면서 응대하는 두 마리의 용, 이번 정상회담은 그들의 자존심만큼
이나 실리를 챙긴, 두 나라 모두 성과가 높은 회담이었다고 한다. 그래
서 우리는 그들은 G2라고 부른다.

문화적 소통의 도구, 와인 리더십

이런 차원 높은 글로벌 리더십의 중심에는 와인·다이닝 알고리즘이
자리하고 있다. 중국의 수준 높은 음식문화와 차(茶)문화가 고급스럽게
다듬어진 미국의 와인문화에 맞장을 뜨고 있다. 일본의 유명한 와인 소
믈리에 타사끼 산야는 “와인파티에서의 주인공은 와인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사람이다”라고 말한다. 와인전문가 소믈리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계적 문화적 소통의 도구로서 우리는 와인에 대해 알아야 한

다. 이제는 기능이 아니라 전체를 아우르는 통섭적, 문화적 접근이어야
한다.

한국인은 왜 협상의 무대에서 매번 지는가? 빨리 빨리 문화에 길들어
진 우리 눈에는 이런 차원 높은 소통의 코드들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
이다. 이런 와인문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와인 리더십은 세계무대
에서 당당할 수 있는, 읊이면서 갑과 함께 대접받고 대화할 수 있는 주
인장 정신(Host Initiative)과 진정으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정신(You
Attitude)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한 장의 사진을 보면서 세계적 수준의 격조 높은 소통의 코
드를 배울 수 있어야 한다. 샴페인을 너무 빨리 터트렸다고 했지만 이
제는 품위 있게 샴페인을 터트리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그래야만 그들
과 함께 당당하게 협상과 대화를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근대화 말기
2만 불 시대를 종언하고 이제 3만 불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
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학습의 기회를 포착할 수 있
을 것이다. **김혜선**

●유혜선 대표

동아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연세
대에서 산업교육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20년 동안 웅진그룹에서 일했으며, 국내
대기업과 기업체에서 CS경영 및 고객만
족에 대해 강의하는 한편 숙명여대 문화
관광과에서 ‘서비스 리더십’, ‘국제문화
와 리더십’ 강의를 맡고 있다. 여성부 사
이버 대표 멘토 10인에 선정되기도 했으
며, (나로부터 시작하는 물결리더십), <아
나운서처럼 세상과 연애하라>, <마케팅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을 위한 스토리마케
팅> 등의 저서가 있다.

[회원소식]

■ **이윤수 KCTC 대표이사 부회장은** 지난 1월 11일, 한국해양대와 한국해양대 총동창회에서 선정한 '제11회 자랑스러운 해대인상'을 수상하였다.



■ **황석희 전 인천공항공사 이사회 의장은** 지난 2월 1일,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열린 '김은정 첼로독주회'에 본원 회원들을 초청하여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다.



■ **KB금융그룹(회장 어윤대)**는 우량 중소기업과 청년 구직자를 이 어주는 일자리 연결 프로젝트인 'KB굿잡(KB Goodjob)'을 출범하였다.



■ **이용원 G&B인슈(주) 대표**는 (주)도암엔지니어링 부서장으로 취임하였다.

- 전 화 : 070-4262-2308 / 팩스 : 02-861-3426
- 주 소 :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345-50 IT프리미어타워 6층 604호
- 홈페이지 : <http://www.doarm.co.kr>

■ **박봉규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2월 25일, 삼성물산대표이사 정연주 건설부문과 오는 5월 사업자 선정을 앞둔 지식경제부의 '코리아 마이크로 에너지 그리드 (K-MEG)'의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조천제 한국섬김리더십연구원 회장**의 저서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가 초등학교 교과서 5학년 1학기 국어책에 실리게 되었다. 한편 한국섬김리더십연구원은 아래와 같이 사무실을 이전하였다.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92-9 성호빌딩 3층
- 전화 : 02-566-3888 / 팩스 : 02-517-1822

■ **김난도 서울대 교수**의 저서 <아프니까 청춘이다>가 2011년을 열면서 주목받고 있다. '아무리 독한 슬럼프 속에서도, 여전히 너는 너야'라는 등의 글로 수많은 청춘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서울대 김난도 교수의 글 42편을 묶어 책으로 엮어냈다.



■ **오명 웅진에너지-폴리실리콘 회장**은 파라과이 정부로부터 꼬멘다도르 훈장을 받았다. 이 훈장은 루고 대통령이 외국인에게 주는 훈장 중 가장 높은 등급으로 오 회장은 파라과이 정보통신기술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 상하게 되었다.



■ **이심 대한노인회 회장**은 2월 17일 백범기념관에서 김항식 총리를 비롯한 정관계 인사 등 3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하례 겸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선 대한노인회 발전에 기여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랑의 쌀 나눔운동본부 등에 감사패를 수여하고 탤런트 강부자씨, 엄기영 전 MBC 사장, 이성림 예총 회장, 김종규 문화유산 국민신탁 이사장 등을 홍보대사로 임명하였다.

■ **공한수 Big Dream & Success 사장**은 충무공 이순신의 거룩한 얼과 나라사랑을 마음의 등불로 삼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성웅 이순신'이라는 노래를 작사하였다. 작곡은 신귀복 선생(현재 작곡가협회 회장 - 얼굴 작곡가)이 맡았다.



■ **조준희 IBK기업은행 행장**은 지난 2월 18-19일 전국 지점장 등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1년 전국 영업점장회의'에서 창립 50주년을



맞는 IBK가 100년 은행을 향해 힘차게 전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개인고객 1000만 명 조기 달성으로 기업과 개인의 균형 성장을 이루는 히트상품을 만들어 지속 성장을 이뤄내자고 강조했다.

■ **김수지서울사이버대 협력총장**은 지난 2월 20일, 아프리카 말라위로 봉사활동을 떠났다. 지난 2월 16일 태평로모임(회장 장만기)에서는 이시형 한국자연의학종합연구원 원장을 포함한 9명이 김수지 총장에게 송별 만찬과 아프리카 말라위병원 후원금을 전달하였다. 어려운 길을 떠난 김수지 총장에게 용기와 힘을 실어 주고, 아프리카 말라위병원 후원에 관심있으신 회원은 본원으로 연락하면 된다.



• 문의 : 민선아 과장 Tel. 02-445-1948

■ **차송일 한경 브랜드전략연구소장&비젠토 대표이사**는 최근 <스마트 프라이싱>(자그모한 라주 저, 차송일 역)를 출간하였다. 이에 지난 2월 23일, 본원 회원들을 특별히 초청하여 VIP만의 특별한 강의와 파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스마트 프라이싱 비법을 공유하였다.



■ **중한해외연수원(원장 김영옥)**과 본원은 지난 2월 23일 흑룡강성 주요도 시 市長, 縣長들로 구성된 한국방문단과 '경제협력 교류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간담회에는 중국에 관심있는 본원 회원들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 외에도 다수의 기업 대표 및 임원들이 참석하여 소수 분야별 기업 대표자 및 담당 임원 간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 **이승한 홈플러스 회장**은 지난 2월 20일 제주도 롯데호텔 에메랄드홀에서 50여 협력업체 대표들을 부부동반으로 초청한 가운데 '홈플러스 협력회사 감사음악회'를 열고 최근 재계의 화두로 떠오른 '동반성장' 실현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또 오는 7월 인천 무의도에 개원 예정인 '홈플러스 아카데미'를 통해서도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을 실현할 계획이다.

■ **김석문 신일팜글라스 대표이사**는 매주 인 간개발경영자연연구회에 참석하는 회원들을 위해 도르만스 수프리미 커피세트를 선물로 후원하고 있다. 도르만스 커피는 엄선된 원두로 로스팅한 후 가공하여 부드럽고 향긋한 고급원두의 맛과 향을 간직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가격과 좋은 품질로 각종 판촉 및 선물용으로 사랑받고 있는 제품이다. 한편 도르만스코리아는 수익의 일부분은 케냐 어린이들을 위해 기부하고 있다.



■ **임덕규 월간 디플로머시 회장**은 지난 2월 21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방한 중인 포르피리오 로보 소사(Porfirio Lobo Sosa) 온두라스 대통령을 면담했다. 임 회장은 이날 온두라스 대통령과 함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유임지지에 적극 동참하기로 하였다.



■ **조인스HR(대표이사 이재산)**은 성과주의 인사제도 정착을 위한 급여전문가 양성과정 6기를 개최한다. 본 과정은 급여관리에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담당자의 실무지식 강화와 인사노무분야에 이르는 배경이 해로 '급여전문가'로서 담당자의 능력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 일시 : 3월 16일(수)-17일(목) 오전 10시 - 오후 8시
- 장소 : 서울여성플라자 아트컬리지 4층(지하철 1호선 대방역 3번 출구)
- 문의 : Tel. 02-890-0815, 0848

[창립기념일을 축하드립니다]

회사명	이름/직함	창립기념일
■ 대주회계법인	백진환 공인회계사	3월 1일
■ 성원교역주	김창송 회장	3월 1일
■ [주]제이에스엔지니어링	정창현 사장	3월 3일
■ 한마음특허사무소	구교근 소장	3월 5일
■ 꿈·희망·미래 재단	김윤중 이사장	3월 7일
■ 한국씨름연맹	김재기 회장	3월 10일
■ 중앙에프앤에스(주)	이재욱 대표이사	3월 15일
■ 협운해운(주)	마상곤 회장	3월 19일
■ 유진기업(주)	유재필 회장	3월 22일
■ [주]일삼	정우철 사장	3월 25일
■ 정경연 이안 한의원	정경연 원장	4월 1일
■ 서창전기	윤계웅 회장	4월 1일
■ 서린바이오사이언스	황을문 대표이사 사장	4월 2일
■ 제천정신병원	오만식 이사장	4월 6일
■ [주]한국크리버	남재현 회장	4월 8일
■ [주]듀오	이충희 사장	4월 10일
■ [주]도드람B&F	김대성 고문	4월 17일
■ 덕지산업개발(주)	배승호 회장	4월 17일
■ 전능(주)	박용필 회장	4월 19일
■ 영동농장	김용복 회장	4월 20일
■ 삼성석유화학	허태학 사장	4월 29일

[소모임소식]

- **다락회(회장 정태익 / 총무 이종원)**는 아래와 같이 3월 모임을 갖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 3월 8일(화) 오후 6시 30분
 - 장소 :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1층 그랑카페
 - 참석여부 : 총무 이종원 (H.P. 010-5306-8587)
- **화목회(회장 황석희 / 총무 홍승국)**는 지난 1월 25일 2011년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의 뜨거운 성원으로 황석희 회장(인천공항공사 이사회 의장과 홍승국 총무(에버그린 MST(주) 대표이사)의 연임을 결정하였습니다. 3월 모임은 아래와 같이 가질 예정이오니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일시 : 3월 15일(화) 오후 6시 30분
 - 장소 : 명동 로얄호텔 21층
 - 참석여부 : 총무 홍승국(H.P. 010-5305-3378)



- **YCF(회장 황광석 / 총무 안정옥)** 2월 모임은 흑우 김대한 선생의 위대한 예술혼을 느끼며 과거를 걸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월 모임은 대학 강의, 살롱모임 운영, 집필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SM컨설팅의 유혜선 대표를 초청하여 '세계무대에서도 당당한 소통의 코드, 와인리더십에 관하여 듣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 일시 : 3월 8일(화) 오후 6시 30분
 - 장소 : 광화문 로쏘 비안코(Tel. 02-732-6218-9)
 - 문의 : 김민선 (Tel. 02-445-1946)



- **책글쓰기를 위한 에세이클럽 (회장 김창송 / 총무 이계옥)**은 2월 14일 문학의집·서울에서 손광성 수필가의 수필쓰기 수업으로 정기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3월 모임은 아래와 같이 가질 예정이오니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일시 : 3월 14일(월) 오후 6시 30분
 - 장소 : 문학의 집·서울 산림문학관 2층홀
 - 문의 : 정용달 팀장 (Tel. 02-445-1949)
- **人經會(회장 이용국 / 총무 이종원)**는 2011년도 시즌 오픈 경기 및 3월 정기모임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모두 참석하셔서 골프를 통한 건강과 유익한 정보 및 즐거움을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 일시: 3월 22일(화) 오전 5시 40분
- 장소: 한양CC
- 참석: 인경회 정회원 및 참석 희망자
- 참석여부: 총무 이종원(H.P. 010-5306-8587)

[연구원 소식]



■ 2011년 정기이사회 및 정기총회 개최

2010년 사업결과와 2011년 사업계획(안) 보고와 결의에 대한 2011 정기이사회가 지난 2월 18일(화) 오전 7시 롯데호텔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사회를 통해 논의된 사안들은 2월 24일(목) 플라자호텔에서 제 1681회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와 겸하여 2011 정기총회에서 결의되었습니다. 장만기 본원 회장은 총회를 통해 승인된 각종 사업들을 한 해 동안 차질 없이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제8회 찾아가는CEO교실 '도레이첨단소재 구미공장' 방문

제1661회 경영자연구회 강사님으로 모셨던 이영관 도레이첨단소재(주) 사장의 초청으로 도레이첨단소재 구미공장을 방문하는 행사를 갖습니다. 공장 방문 후에는 특별히 남유진 구미시장과 만남의 시간을 마련하였사오니 회원님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일시: 3월 11일(금) 오전 7시~ 오후 10시
- 내용: 도레이첨단소재 구미공장 및 구미시청
- 참가비: 10만 원
- 문의: 경영자교육팀 김인선 (T.02-445-1946)

■ 2011년도 연회비 인상신규회원 대상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를 진행하고 있는 호텔 측의 식사비 인상 등으로 인해 2월부터 참가비가 인상되었으며, 더불어 15년간 유지했던 연회비도 2011년 정기이사회를 통하여 인상되었습니다. 기존 회원들은 인상시점부터 1년간 현 수준을 유지하게 되며, 신규가입 회원부터는

인상된 연회비가 적용됩니다. 인간개발연구원은 정부 지원 없이 순수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고 있으며, 평소 함께하고픈 지인들을 소개해주시면 인상 전 회비로 가입 가능하오니 많은 분들의 추천을 바랍니다.

■ 한·연해주친선협회 발족



이인제 의원, 문국현 전 창조한국당 대표 등 각계 인사 30여 명은 1월 31일 캐피탈호텔에서 한연해주친선협회 발기인 모임을 갖고 회장에 권기식 본원 원장을 추대했다. 이인

제 의원과 문국현 전 대표, 정태익 전 러시아 대사가 상임고문을 맡았다. 협회는 다음 달 창립대회를 갖고 하반기 중 대규모 통상사절단을 연해주에 파견하기로 했다. 한편 권 회장은 2월 5-8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해 연해주정부 제1부지사와 사회당당 부지사 등을 만나 협회의 활동방향 등을 논의했다.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기원 140만 명 서명

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민간단체협의회(회장 엄기영, 사무총장 권기식 이하 '민단협') 회원들은 지난 2월 16일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리조트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기원하는 140만 명의 서명부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조사평가위원회에 전달했다. 민단협은 지난 1월부터 서명운동을 시작해 모두 140만 4천 611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다. 엄 회장은 "서명용지는 전국에서 계속 올라오고 있어 앞으로 모두 20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며 "린드버그 평가위원장은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31개국에서 받은 유치기원 서명용지에 대해 대한민국의 뜨거운 열기를 알겠다고 말했다"라고 전했다.

Welcom to KHDI

[신규회원]

1. 개인회원

■ 김용민 윌리엄그랜트 앤 선즈코리아사장

김용민 대표는故 김흥식 장성군수의 자제로 밀러맥주 한국지사장을 역임하고, 세계 3위 위스키 제조사인 영국 윌리엄그랜트 앤 선즈코리아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 전화 : 02-6672-1080
- 팩스 : 02-6672-1090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36번지 센터빌딩 1301호

■ 백정선(주)TNV어드바이저 대표이사

2003년 설립된 TNV어드바이저스(Advisors)는 재무 상담사와 법률, 세무, 부동산, 주식, 손해사정 등 전문 자문위원을 두고 전반적인 재무 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총 11개 지점과 임직원 300명을 두고 있다. 백정선 대표는 본원에서 운영하는 지방자치 아카데미 중 장성군, 정선군 등에서 강연을 한 바 있다.



- 전화 : 02-2036-5300
- 팩스 : 02-555-6596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대치4동 891-43 MSA빌딩 5층
- 홈페이지 : <https://tnvc.co.kr/>

■ 엄기영 2018 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 민간단체협의회 회장

지난 12월 10일 창립된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후원단체로서 한국예총 등 30여 개 단체 200만 명 회원으로 구성되었으며, 1월 1일부터 유치지원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 전화 : 02-737-2018
- 팩스 : 02-737-2017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1가 238번지 신문로빌딩 3층

■ 서경석(주)일우선박 전문

오랜 기간 본원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정권 일우선박 회장의 자제이다.

- 전화 : 02-578-4066
- 팩스 : 02-578-2297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56-26 보광빌딩 6층

■ 양철환 국방부 통합방산전시회 지원단장

대한민국의 영공 방어를 책임지고 있는 양철환 장군은 공군사관학교 29기로서 수석졸업하고,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다. 또한 세계 명품인 초음속 고등 훈련기 T-50기종을 최초로 운용하는 First&Best 비행단 단장, 공군본부 정책실장을 역임하였다.



-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 588-1 청량리역 TMO

■ 김용래 주택관리공단 노동조합위원장

NH공사 자회사로서 2300여 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전국 40여 만 가구 영세민 아파트를 관리하는 공기업이다.



- 전화 : 031-303-4350
- 팩스 : 031-303-4368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266-3 파크프라자 3층 주택관리공단 노동조합
- 홈페이지 : <http://www.kohom.co.kr>

■ 유명만(주)웰텍 코리아 대표이사

웰텍코리아는 데이터를 원거리에서 송수신할 수 있는 디지털무선통신(RF)기술과 전원제어 기술을 바탕으로 사용자에게 편리성과 안정성 및 절전성을 제공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첨단기술 보유 기업이다.



- 전화 : 031-776-4488
- 팩스 : 031-776-4485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90-1 SK테크노파크 메가동 313호
- 홈페이지 : <http://www.weltechkorea.com>

■ **김영옥 중한해외연수원 원장**

중한해외연수원은 중국의 공무원들에게 한국의 새마을 운동을 비롯한 한국 경제성장과 정부혁신 및 개혁개방형 리더십 등을 알리는 역할을 해 오고 있다.

- 전화 : 070-7500-7610
- 팩스 : 02-6008-0880
-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주엽동102 BYC빌딩 524호
- 홈페이지 : <http://www.okck.co.kr>



■ **조남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

조남철 총장은 제6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으로 동북아평화연대 공동대표를 역임하고 있으며, 재외동포, 이주민 등 교육 소외자에 대한 교육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 전화 : 02-3668-4100
- 팩스 : 02-747-9878
- 주소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5가 서울스퀘어빌딩 601호
- 홈페이지 : <http://www.knou.ac.kr/>



■ **김남윤 관동실업 대표이사**

10년간 본원 회원으로 활동했던 김석기 관동실업 회장의 자제로 관동실업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 전화 : 02-2671-5365-6
- 팩스 : 02-2675-6067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1가 9-32

■ **구연숙 (주)헤럴드 부사장**

구연숙 부사장은 조동호 헤럴드 회장의 배우자로서 2010년부터 함께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에 참가하던 중 2011년 새해를 맞아 정식회원으로 가입했다.

- 전화 : 031-919-6422-4
- 팩스 : 031-19-6425
-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50 일산삼성스위트 1206

2. 지식나눔회원

■ **유혜선 SM컨설팅 대표**

유혜선 대표는 리바트 및 전남체신청 우체국장위크샵 특강 강연료를 본원에 기부하고, 2011년 지식나눔회원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 전화 : 02-6408-6992
- 팩스 : 02-6408-6992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64-39 지훈빌딩 3층
- 홈페이지 : <http://www.sunnyyoo.com>



■ **차승일 (주)비젠토 대표이사**

차승일 대표는 비젠토 대표 및 한경브랜드 마케팅연구소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이랜드 그룹에서 CMO로도 활동한 바 있다. 비젠토 (VIZENTO=Biz+Mentor)는 글로벌 기업과 글로벌 브랜드 육성을 위해 기업의 문화경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본원에 대한 브랜드 마케팅 분야를 지원하고 있다.

- 전화 : 02-2269-2488
- 팩스 : 0505-489-2489
- 주소 : 서울시 중구 필동 2가 19-5 토픽빌딩 2층
- 홈페이지 : <http://www.vizento.com>



■ **김성문 선생(대금 연주자)**

대금 명인 김성문 선생은 지난 창립 36주년 기념 포럼에서 축하공연으로 대금연주를 해주시고 공연료를 기부하여 2011년 지식나눔회원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2011년 새해 아카데미 개강 이어져 올 한 해도 전국민의 평생학습 정착에 기여할 것

〈교육컨설팅소식〉

■ 지방자치아카데미, 구제역으로 주춤한 가운데 1월 개강



지난 연말 발생한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사회에 각종 파장을 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계 역시 그 영향을 받고 있다.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각종 행사일정을 연기하고 있어 본원에서 주관하는 다수의 지방자치아카데미 일정도 3월 이후로 연기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5년 개강 이래 전국 지방자치아카데미의 효시가 된 '21세기 장성아카데미'를 비롯해 경남 창원시청, 경북 구미시청, 전남 완도군청, 나주시청, 경기 부천시청, 서울 강서구청 등은 예정대로 아카데미를 개최해 교육에 대한 열의를 불태웠다. 한편 오는 3월 10일 제700회 강연을 맞는 장성아카데미는 지난 2월 10일 장태평 前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모시고 "우리 농수산업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아카데미를 개최해 전통을 이어갔다.

■ 기업·공공기관 2011년 정기교육 개강

기업 정기교육에서는 세아제강 신년워크숍에 허영호 탐험가, 리바트에 정관용 시사칼럼니스트, 대웅제약 경남지역본부에 김윤중 꿈희망미래재단 이사장, YPP디지털에 성연미 봄온커뮤니케이션 대표 등이 강사로 참여해 2011년 첫 강연의 테이프를 끊었다. 공공기관 정기교육에서는 우정사업본부가 2월 23일, 오종남 前 IMF 상임이사를 모시고 2011년 포스트 아카데미 개강식을 가졌다. 한편 제주시의회와 함께 2월 28일, 의

회의 원활한 운영과 의원 보좌기능 강화, 직무수행 능력 강화 및 발전적인 조직문화 창출을 위한 의회사무처 직원워크숍을 개최했다.

■ 공군하늘사랑아카데미, 2011년 군부대아카데미 첫 강연

공군 리더들을 대상으로 변화와 트렌드 인식, 창조적 업무수행 역량 고취를 위해 개설한 군부대 아카데미가 지난 1월 31일, 구일섭 남서울대 교



수의 공군하늘사랑아카데미 강연을 시작으로 새해 첫 문을 열었다. 2006년부터 시작된 군부대 아카데미는 그동안 군의 지식학습을 위한 배움의 장으로, 사회적 트렌드 인식과 창조적인 업무수행 역량 고취를 위한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그동안 다녀간 강사들도 조순 前 경제부총리, 조현정 비트컴퓨터 회장, 김상수 LG전자 부회장,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 문국현 유한킴벌리 사장, 금난새 지휘자 등 사회 각계의 저명인사들이 두루 참여했다. 본원은 2011년 군부대아카데미를 군합동성 강화 교육을 비롯해 지식경영시스템 도입, 과학화 시대에 미래형 고지식, 고능력, 고기능 인력의 육성을 위한 군특화 과정으로 더욱 활성화 시킬 계획이다.

〈교육컨설팅기관 소식〉

■ 우정사업본부, 3월까지 사은품 대잔치

우정사업본부(본부장 남궁민)는 새봄을 맞아 전자금융 고객 1000명에게 스마트TV, 아이패드 등 풍성한 사은품을 지급하는 행사를 갖는다. 우체국 인터넷뱅킹, 폰뱅킹, 모바일뱅킹에 가입하고 1회 이상 이용하면 400명을 추첨해 1등 1명에게 300만 원 상당의 스마트TV를, 2등 2명에게 80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를, 3등 7명에게는 50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 등을 지급한다. 기존 가입고객도 3회 이상 전자금융서비스를 이용하면 400명을 추첨해 사은품을 준다. 또 우체국보험 대출 신청 고객이 전자금융에 가입하면 200명에게 2만 원 상당의 우체국쇼핑 상품

권을 제공한다. 2월 21일부터 3월 21일까지 진행되며, 당첨자는 3월 23일 우체국 인터넷뱅킹(www.epostbank.go.kr) 홈페이지 확인 및 개별 문자메시지가 전달될 예정이다

■ 'JDC 글로벌아카데미' 2011년 확대 운영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 변정일)가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인재양성을 위해 매년 본원과 함께 개최하고 있는 'JDC 글로벌아카데미'가 2011년 그 대상을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

다. JDC는 그동안 제주시지역, 서귀포시지역,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진행해온 글로벌아카데미가 올해는 제주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JDC 대학생 글로벌아카데미'를 추가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학생 대상 아카데미는 총 26회 개최되며, 본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은 정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한편 JDC 글로벌아카데미는 3월 초 일괄 개강 예정이다.

■ 장성군, 기업투자유치 이어져



전남 장성군(군수 김양수)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정평이 나면서 2011년 들어 활발한 투자유치를 이어가고 있다. 장성군

은 지난 2월 17일 전남도청에서 박준영 도지사와 김양수 군수 및 (주)가온에프에스, (주)티엔비 등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투자협약에 따라 (주)가온에프에스 70억 원, (주)티엔비 42억 원 등 총 112억 원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장성군은 지난해 34개업 기업을 유치해 1,096억 원을 투자, 723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올렸으며, 민선 5기 동안 총 112개의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주민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 목포시, 올 노인일자리사업 18억 2100만 원 투입

전남 목포시(시장 정종득)는 노인들의 경제난을 해소하고 사회적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2011년도 노인일자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총 18억 2100만 원을 투입해 나누리강사 파견, 노인 학대 예방, 독거노인 돌봄사업 등 총 22개 사업에 대해 3월부터 7개월 동안 저소득 노인

2000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사업신청 자격은 지역 내 거주하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로 신체 건강한 노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 경주시, 2012년까지 힐링센터 건립에 60억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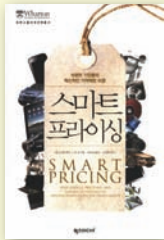
경북 경주시는(시장 최양식) 지난 2월 1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최양식 시장, 이태현 부시장, 손동진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 이경섭 동국대경제병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관광 힐링센터 건립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힐링센터는 2012년까지 총사업비 60억 원을 투자해 동국대 경주병원에 건립될 예정이다.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시는 경북도와 동국대, 동국대 병원의 4개 기관 협업으로 천년고도 경주의 세계적 문화유적과 오랜 역사와 전통, 문화와 예술 등 무한한 잠재력을 활용해 경주를 찾는 경북도민들과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자연과 문화, 양·한방 치료 등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세계적 힐링 메카로서의 자리매김을 위해 공동 노력을 하게 된다.



■ 가평군, 호명산 '와인밸리' 조성

경기 가평군(부군수 이춘배)은 지난 2월 17일 가평군청에서 한국관광공사와 와인밸리조성과 녹색관광산업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군과 한국관광공사는 2014년까지 호명산 일대에 177억 원을 들여 대규모 포도밭과 와인양조장, 공장, 레스토랑, 스파시설 등을 건립하고 다양한 체험도 할 수 있는 와인밸리를 조성할 계획이다. 군은 북한강 관광벨트화 조성사업이 완료되는 2014년 이후에는 국내 수변관광거점지역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해 청정 가평을 국내외에 알리는 물론 1,390억 원에 달하는 경제효과와 200여 명에 이르는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마트 프라이싱

자그모한 라주, Z. 존 장 / 차송일 역 / 렉스미디어 / 324쪽

스마트 프라이싱으로 재혁신하라!

가격에 대한 고정관념을 통째로 흔드는 <스마트 프라이싱>. 미국 워튼스쿨의 자그모

한 라주 교수와 Z. 존 장 교수가 수천 명의 기업 임원, 경영전문가, MBA, 학부생 등에게 10여 년간 강의하고 컨설팅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저술한 진정 '스마트'하게 가격을 책정하는 법을 소개한 책이다. 기존에 많이 사용하는 생산 비용 더하기 이익 기준 가격 결정, 경쟁사 가격을 고려한 가격 결정, 고객이 인지한 가치에 기준을 둔 가격 결정 외에 기술 발전과 함께 등장한 다양한 종류의 새로운 가격 결정 방법을 사례와 함께 알기 쉽게 설명한다.

이번 한국어판에서는 '원하는 만큼 지불하라' 방법을 독자 구독료 주기에 적용한 <오마이뉴스>의 '좋은 기사 원고료 주기' 제도, '무료화' 방법을 박물관 입장에 적용한 국립중앙박물관의 '무료 관람' 제도, 마지막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고객의 주머니를 쉽게 여는 '폰돈 효과' 방법을 온라인 게임에서 자주 활용되는 '부분 유료화' 가격 등을 부록으로 수록해 이해를 돕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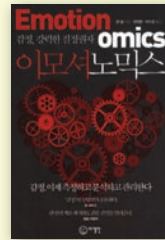
위키리크스

다니엘 돔사이트-베르크 / 배명자 역 / 지식갤러리 / 339쪽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위키리크스' 그 실체가 최초 공개된다!

2010년 11월 28일, 미국 국무부의 외교전문

25만여 건을 공개하면서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던 위키리크스. 이 책은 위키리크스의 초창기 멤버이자 2인자로 활동했던 저자가 위키리크스의 내부 비밀과 실체를 최초로 밝혀낸 책이다. 저자는 지금까지 위키리크스에 대해 알려진 것은 극히 일부뿐이라고 주장하며,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과 일화들을 거침없이 폭로한다. '워싱턴포스트'가 지난 30년간 해온 것보다 더 많은 특종을 3년 만에 생산해낸 위키리크스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며, 어떻게 운영되고, 또 어떤 문건들을 더 보유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



이모셔노믹스

댄 힐 / 안진환, 이수경 역 / 마젤란 / 487쪽

감정을 측정하고 관리하라!

인간은 사고보다 감정이 먼저 일어나도록 진화해왔다. 감정이 감각 정보를 처리하는 데에는 이성 뇌가 처리하는 시간의 1/5밖에 걸리지 않는다.

마케팅 전문가이자 '페이셜 코딩'의 전문가인 저자는 얼굴 표정에서부터 교통 표지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을 오가며 감정에 관해 분석한다. 감정이 논리를 이기는 이유, 감성적 요소를 브랜드, 광고, 고객 관리에 적용하는 방법을 꼼꼼히 알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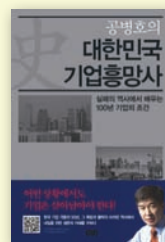


소셜커머스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유윤수, 윤상진 / 더숲 / 372쪽

몽치면 싸고 훌어지면 비싸다! 소셜커머스의 모든 것!

2010년 상반기에는 트위터와 페이스북의 열풍이 불었고, 하반기에는 소셜네트워크, 소셜마케팅, 소셜미디어가 화두가 되었다. 조용히 등장했지만 반응은 폭발적인 소셜커머스. 이 책은 세계 비즈니스 지도를 바꾼 소셜커머스의 실체를 다룬다. 소셜커머스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정립에서부터 시작해 활용전략, 소셜커머스가 주목받는 진짜 이유, 국내외의 다양한 사례와 문제점, 향후 시장의 전망, 그리고 B2B, B2C, LBS 응용 SNS 어플리케이션에 이르기까지 소셜커머스에 관한 모든 부분을 총망라했다.



공병호의 대한민국 기업흥망사

공병호 / 해냄출판사 / 392쪽

한국 기업 격동의 50년에서 내일을 위한 기업 생존의 지혜와 통찰을 구하다!

세계경영의 대우, 국민 소주 진로, 아파트의 명가 우성, 섬유왕국 한일... 이들은 한때 한

국 경제의 주역이었으나 IMF 전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린 이 땅의 재벌기업들이다. 경제전문가 공병호 박사는 책에서 그들의 영광과 좌절, 부상과 몰락의 흥망사를 통해 대한민국 기업의 지속 생존을 가로막는 고질적 문제점과 극복 방안을 모색한다.



더 나은 삶을 상상하라

토니 주트 / 김일년 역 / 플래닛 / 240쪽

우리는 어떠한 사회에서 살기 바라는가?

이 책은 '전후 유럽에 관한 최고의 역사서'로 평가받는 <포스트워 1945-2005>의 저자 토니 주트의 마지막 저서다. 루게릭병으로 예고된 죽음을 기다리던 저자가 혼신의 힘을 다해 쓴 이 책은 규제받지 않는 자유 시장과 효율성을 기치로 내걸며 지난 30년간 극심한 빈부 격차와 불평등을 불러온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맹렬히 비난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불평등의 완화임을 역설하고, 어떤 종류의 국가가 그러한 과제를 실현할 수 있는지 다시 생각할 것을 촉구하며 20세기의 교훈을 되새길 것을 권한다.



삶의 정도

윤석철 / 위즈덤하우스 / 288쪽

인간다운 생존경쟁의 길은 무엇인가?

한국 경영학의 원로 윤석철 교수의 철학과 학문세계를 집대성한 책이다. 인문사회, 자연과학, 경영학 등 저자가 평생 동안 연구한 이론과 업적을 바탕으로 삶의 목적을 가치 있게 실현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를 총체적으로 담아냈다. 다양한 학문적 이론과 사례를 통해 인생의 가치(목적)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과 선택의 기준을 보여준다. 저자는 인간이 가치 있는 삶을 완성하려면 '목적 함수'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그를 지지해줄 '수단매제'가 뒷받침이 된다면 '생존경쟁'의 장인 삶의 터전에서 자신의 의지를 세우며 살아나갈 수 있다고 말한다.



오페라 '파우스트'

노년기에 접어든 철학자 파우스트는 학문으로 청춘을 보내버린 인생에 회의를 느낀다. 파우스트가 독약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자 메피스토펠레스가 나타나고, 파우스트가 영혼을 팔고 젊음을 얻으면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원하던 젊음을 얻은 파우스트는 메피스토펠레스가 연결시켜준 마르게리타와 사랑에 빠진다. 마르게리타는 파우스트의 아이까지 낳지만 결국, 파우스트에게 버림을 당하고 오빠마저 죽게 되자 충격을 받고 아이를 죽이고 만다. 감옥에 갇힌 그녀를 구하기 위해 파우스트와 메피스토펠레스가 나타나지만 그녀는 구원을 바라는 기도를 하다가 죽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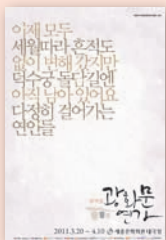
- 일정 : 3월 16일(수) ~ 3월 20일(일)까지
- 장소 :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 문의 : 국립오페라단 02-586-5282



연극 '오텔로와 이아고'

베니스의 장군 오텔로는 사이프러스 섬을 적의 공격에서 지켜내고 섬의 통치권을 얻어냈다. 이 전쟁은 그가 그토록 열망하던 데스데모나와의 관계가 완성되는 순간이기도 했다. 그는 데스데모나와 그녀의 아버지 몰래 결혼을 했는데 이제 비로소 공식적인 부부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오텔로는 그토록 사랑하던 데스데모나가 자신 모르게 바람을 피웠다는 의심을 하게 된다.

- 일정 : 3월 8일(화) ~ 3월 12일(토)까지
- 장소 :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 문의 : MJ컴퍼니 02-468-6443



뮤지컬 '광화문 연가'

故 이영훈 작곡가가 남긴 마지막 이야기! 고인이 된 작곡가 이영훈이 지난 2004년부터 야심차게 준비해온 뮤지컬 '광화문연가'는 고인이 직접 기획하고 오래도록 준비해온 고인의 마지막 유작이다. 옛사랑, 사랑이 지나가면, 가로수 그늘아래 서면, 깊은 밤을 날아서 등 그의 주옥같은 히트곡들이 세 남녀의 가슴 시린 사랑이야기 속에 녹아든다.

- 일정 : 3월 20일(일) ~ 4월 10일(일)까지
- 장소 :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 문의 : (주)랑 1666-8662



발레 '돈키호테'

유니버설발레단 창단 27주년의 해를 맞이하여 발레 '돈키호테'가 무대에 오른다. 260년 넘게 '희극 발레'의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명작이다. 이 작품은 유니버설발레단의 장기간 화려함이 돋보인다. 선술집 딸 키트리와 이발사 바질의 결혼 해프닝이 주 스토리다. 소설의 주인공 돈키호테는 발레에서 두 주인공의 결혼을 도와주는 조연으로 나온다. 다채롭고 재미있는 사건과 변화무쌍한 스토리 전개가 흥미진진함을 더할 뿐만 아니라 스페인 풍의 춤들이 다양한 볼거리로 구성돼 관객을 열광시킬 예정이다.

- 일정 : 3월 25일(금) ~ 3월 28일(월)까지
- 장소 :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 문의 : 유니버설발레단 070-7124-1733

낮선 곳에서 새로운 꿈을 찾다



●성연미 대표

동국대 국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서강대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KBS 공채 12기 아나운서 출신으로 2002년 봄온아카데미를 설립해 수많은 방송사 공채에 전원합격, 최다합격이라는 진기록을 세우고 있다. 스피치 커뮤니케이션학회 부회장, 화법학회 이사 등으로 활동했으며, 송실대 언론홍보학과 겸임교수로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등을 강의하고 있다.

우리 사회 크리스천 리더들과 함께 '예수의 섬김 리더십'을 공부하고 실천하고자 개설한 '크리스천 리더스 아카데미' 1기는 특강 프로그램과 국내 시찰 및 봉사활동 외에 크리스천 리더들의 신앙적 리더십을 배양하고자 해외봉사 및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1월 12일부터 16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진행된 첫 번째 해외봉사탐방 지역은 캄보디아 시엠립으로 현지에서 무료급식 활동을 펼치고 있는 다일공동체를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11명의 원우회원들이 함께한 이번 탐방 프로그램을 성연미 대표의 글로 소개합니다.

- 편집자 주

수많은 아나운서들이 탄생하고 수많은 지망생들이 꿈을 키우고 있는 곳, 봄온. 2002년 꿈을 찾는 예비 아나운서들에게도 봄날이 오길 바라는 마음에서 '봄온'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그들과의 꿈의 여정이 어드워드 10년을 맞이하고 있다.

처음 그들과의 사랑으로 삶의 환희마저 느끼던 날, 내 인생의 의미를 찾게 해준 그들을 위해 남은 인생을 바치기로 했다. 인생은 꿈을 꾸고 도전하며 부딪히고 아파하며 깨달아 가는 과정이라고 했던가. 그렇다면 이제 10살이 되는 봄온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 걸까? 나는 생각한다. 소통과 타협의 부재로 혼란의 편린들이 사회 곳곳에서 아픔과 상처로 얼룩지는 요즘, 방송과 아나운서는 우리사회의 방향과 이상을 제시해줄 나침반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이다.

그렇다면 우리사회에서 봄온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작은 일부터 생각해보자. 봄온의 학생들이 지금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들이 방송가를 이끌어갈 원동력이 되게 하고, 시청자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던 중, 인간개발연구원과 CBS가 함께 하고 있는 '크리스천 리더스 아카데미'의 캄보디아 봉사탐방단에 합류하게 되었다.

선생인 내가 깨달아야 그들도 깨달을 것이고, 먼저 솔선수범해야 그들도 용기를 내서 도전할 것이라는 생각에 한 치의 주저함도 없이 신청한 이번 탐방은 내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준 감동적인 경험이었다.

존경하는 우리사회 리더들과 자원봉사를 떠나다



1월 12일, 평소 존경하던 분들과의 여행이 시작되었다. 이번 여행을 기획한 인간개발연구원이 좋은 이유는 장만기 회장과 그 주변사람들의 순수하고 긍정적인 방식 때문인 것 같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삶의 철학이 같은 사람을 찾기 마련인데, 나는 인간개발연구원에서 그것을 발견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자원봉사 여행은 더욱 가까워서 그분들을 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다.

다일공동체와 밥퍼, 오피니언 리더들의 공통점

'당신이 동그라미를 그린 이유는 당신이 동그라미를 생각했기 때문이다'라는 말처럼 우리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달라진다. 다일공동체와의 만남은 오피니언 리더들의 마음에 강력한 진동을 만들어준 위대한 만남이었다.



우리는 하루 수백 개에 달하는 빵을 만들고, 300여 명분의 반찬을 만들고, 엄청난 양의 밥을 짓고, 세상에서 가장 예쁜 눈을 가졌다는 캄보디아의 아이들에게 밥을 퍼주었다. 밥을 받는 그들보다 주는 우리가 더 감동적인 것은 왜였을까? 평소 거인들처럼 느껴졌던 대한민국 대표들의 눈망울에 그렁그렁 눈물이 고이기 시작하고, 눈물을 닦으면서 봉사활동에 행복해하는 리더들의 모습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가 보이는 듯하다.

이번 여행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베풀고 나눔으로 인한 진한 감동을 느껴보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1달러면 하루를 살기에 충분한 그들은 우리가 조금만 나눠줘도 행복해한다. 물론 1달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립에 그들의 대한 의지일 것이다.

킬링필드의 눈물에서 앙코르와트의 불가사의까지



캄보디아 곳곳에는 킬링필드의 잔해가 남아 있다. 그들의 눈물과 한이 서려 있는 유해를 보면서 살아있는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 이 땅에서 다통과 분쟁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를 생각해본다.

누구도 눈물 없이는 밥을 수 없는 비극의 땅에서 세계 7대 불가사의인 앙코르와트로 이어지는 감동의 여정. 신은 행복과 불행을 같이 준다고 했던가. 행복에 자만하지 않고 불행에 슬퍼하지 않도록 앙코르와트는 신이 그들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 아닐 수 없다. 이곳저곳에서 신축 중인 관광호텔을 보며 그들에게 신의 축복이 함께하길 간절히 기도해본다.

소통의 땅, 캄보디아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다섯 번째로 높은 나라인 캄보디아. 가난하고 먹을 것이 부족해도 늘 행복한 미소가 가지지 않는 그들에게 행복의 척도는 무엇일까? 자기 먹을 것보다 가족들의 먹을 것을 챙기는 그들. 가족을 더욱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꼭 한국에 가서 일해보고 싶었던 현지가이드 문헌. 나는 그들이 가진 것이 없으면서도 행복한 이유가 궁금했는데,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그들의 행복은 '소통'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었다.

나 자신과의 소통, 사람들과의 소통, 신과의 소통이 잘되는 사람일수록 행복하다는 그들의 얘기는 우리에게 과연 어떤 삶이 행복한 것인가를 다시 한 번 시사해준다. 연일 뉴스에서 쏟아져 나오는 소통의 혼란으로 인한 사건사고를 겪고 있는 우리로서는 정말이지 부럽지 않을 수 없다.

또 다시 꿈을 꾸다



어색해하던 우리의 만남은 같은 꿈을 꾸는 동지애로 이어지고,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친구가 되었다. 그들은 우리가 왜,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영원한 동지들이다. 우리가 진정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사회의 리더들이 앞장서서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바로 우리가 끊임없이 공부하고 깨달으려 노력하는 이유, 인간에 대한 끊임없는 사랑과 헌신이 아닐까. **김재민**

연해주에서 한민족의 미래를 보다

크리스천 리더스 아카데미 1기 두 번째 해외봉사 탐방 지역은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입니다. 2월 5일부터 8일까지 3박4일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이번 탐방에는 20여 명의 CLA 1기 회원들이 참여하였습니다. 1860년대 연해주로 이주했던 고려인 동포들의 유량의 역사현장과 구소련 해체 이후 다시 돌아오는 재이주 고려인들의 자활현장을 방문하고, 발해와 항일독립운동 유적지 등을 둘러 보는 이번 탐방 프로그램을 이인제 의원의 글을 통해 들어봅니다.

- 편집자 주



모스크바까지 광활한 시베리아를 횡단하는 9,288km의 철길, 시베리아횡단철도의 시발역은 블라디보스토크이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한 시간 남짓 가다보면 라즈돌로예역(驛)에 이른다. 눈 덮인 이 작은 시골역 앞에 서서 나는 70여년 전 혁명과 전쟁의 광풍에 떨던 우리 동포들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황무지에 뿌려진 우리 동포들의 개척정신

19세기 중반부터 우리 민족의 연해주 이주가 시작되었다. 20세기 초반 일제의 침략에 맞서 싸울 때, 연해주 동포사회는 해외 항일투쟁의 중요한 거점이었다. 그러나 소련과 일본의 전쟁이 임박하면서 광풍이 몰아닥쳤다. 바로 스탈린의 볼셰비키 정권이 30만 명에 이르는 우리 동포를 강제 이주시켜 버리고 만 것이다.

스탈린은 동요를 막기 위해 사전에 동포사회 지도자 3,000여 명을 처형했다. 그리고 1937년 9월 21일, 마침내 영문도 모르고 끌려나온 우리 동포들을 이 시골역에 집결시켰다. 짐짝처럼 화물칸에 던져진 우리 동포들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40여 일간의 살인적인 여정 끝에 중앙아시아 황무지에 뿌려졌다. 삶은 끈질기고 위대하다. 뿌리가 뽑혀 황무지에 던져졌지만 토굴을 파고 새로운 삶을 개척한 우리 동포들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에서 성공한 소수민족사회를 형성하였다. 처음 소비에트 정권은 '죽어도 좋고, 살아서 황무지를 개척하면 더 좋다'는 속셈으로 강제 이주 정책을 밀어붙였을 것이다. 우리 동포들은 수많은 희생을 넘어 황무지를 옥토로 개척하며 삶을 꽃피웠다. 들불처럼 끈질긴 생명력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시련은 이어졌다. 1991년 소연방이 해체되고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이 독립하면서 이들



● 이인제 의원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1회 사법고시에 합격, 대전지방법원 판사를 거쳐 변호사로 활동했다.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에 당선 후 제14, 16, 17, 18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있다. 노동부 장관, 초대 민선 경기도지사를 역임했으며, 새천년 민주당 최고위원, 자유민주연합 부총재 겸 총재권한대 행등을 지낸 바 있다.

나라에 민족주의 광풍이 불고 있다. 또다시 우리 동포들의 삶이 위협받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 그들은 조상들이 살던 연해주를 향해 하나 둘 힘든 발길을 돌리고 있다.

현재까지 약 4만여 명의 동포들이 연해주로 돌아왔다. 중앙아시아에 민족주의 바람이 찾아들지 않는 한 그 행렬은 계속될 전망이다. 나는 연해주의 두 번째 도시 우스리스크시에서 열린 고려인 동포들의 설 잔치에 참석하여 연설할 기회를 가졌다. 시련이 그들을 한없이 강건하게 만들었음을 한 눈에 알 수 있었다. 그들의 노래와 춤 속에서 완강하게 빛나는 우리 민족문화의 원형(原形)을 발견할 수 있어 행복했다.



1. 라즈돌로예역에서 CLA 회원들
2. 설날 고려인문화한마당 축제
3. 고려인 농업정착마을에서 회원들과 함께한 이 의원
4. 고려인들이 생산한 메주의 품질을 살피는 이 의원
5. 미하일로프카 은혜교회에서 예배 후 함께한 사람들
6. 고려인문화센터 앞에서 CLA 회원들
7. 올레이스키 연해주 부지사와의 면담
8. 블라디보스톡 항구 전망대에서

우리 민족이 연해주에 삶의 뿌리를
 박았던 것도, 대륙을 오고 가는
 시련을 통해 한없이 강건해진 것도,
 우리 민족문화의 원형을 보존하고
 있는 것도 모두 미래를 대비한
 역사의 섭리다.

통일이 되면 연해주 동포들의 대륙의
 주인으로서 당당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평화와 번영의 땅이 될 연해주

거슬러 올라가면 이 땅은 우리 민족의 무대였다. 고조선, 고구려, 발해는 바로 우리 민족이 연해주를 비롯한 동북아 대륙을 아우르며 경영했던 다민족국가의 이름이다. 역사는 순환한다. 우리 민족이 이 땅에 다시 삶의 뿌리를 박았던 것도, 대륙을 오고 가는 시련을 통해 한없이 강건해진 것도, 우리 민족문화의 원형을 보존하고 있는 것도 모두 미래를 대비한 역사의 섭리일 것이다.

중앙아시아에서 돌아온 동포들의 삶은 고단하다. '동북아평화연대'라는 시민단체가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봉사하는 현장을 둘러보았다. 우즈베키스탄에서 돌아온 한 여인은 전 재산을 모두 버린 채 빈 손으로 올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들의 거친 삶을 보살피는 동북아평화연대 일꾼들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 큰 힘이 되지는 않겠지만 나도 작은 회원이 되기로 결심하였다.

블라디보스톡 전망대에 서니 머지않은 곳에 두만강이 보이는 듯했다. 내년엔 개최되는 APEC 정상회담 준비로 온 도시에 대형 건설공사가 한창이다. 러시아 극동함대가 자리 잡은 작은 만(灣)을 제외하고는 모두 얼음 바다이다. 뱃길을 열기 위해 얼음을 깨는 배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생각에 잠겼다. '이 블라디보스톡이 언제쯤이면 더 이상 낯선 항구가 아니라 이곳에 삶의 뿌리를 내린 동포들과 함께 희망을 키우는 친근한 항구가 될 수 있을까.' 바로 통일이다. 연해주의 한 동포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한다. "한국은 섬나라입니까?" 아니라고 하자, 육지로 갈 수 없는데 왜 섬나라가 아니냐고 되물었다는 것이다.

분단이 해를 거듭하며 연해주를 한없이 먼 땅으로 만들었다. 통일이 되면 이곳은 국경을 초월하여 우리의 경제와 문화가 넘치는 평화와 번영의 땅이 된다. 유랑을 거듭하던 이 땅의 동포들도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 대륙의 주인으로 당당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김재민**

섬김의 리더십을 실천하는 CLA 1기

- 크리스천 오피니언 리더 78명, 15주 과정 마쳐



15주 과정을 무사히 마친 CLA 1기생들



2월 15일 수료식에는 10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 해 10월 12일, 김삼환 명성교회 목사의 개강 예배와 이번 최고위 과정의 지향성인 '예수의 섬김 리더십'을 주제로 한 송자 명지학원 이사장의 강연으로 개강한 크리스천 리더스 아카데미 1기가 2월 15일 팔래스호텔에서 100여 명의 과정 수료자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수료식을 가졌다.

매주 화요일 장장 15주간의 일정에 너무나도 진지하고 겸손한 태도로 수업에 임했던 참가자들의 눈빛은 진정으로 섬기는 리더, 배우는 리더의 롤 모델이었다.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김영길 한동대 총장, 이만의 환경부 장관, 유장희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등 매주 다양한 크리스천 대표 강사들의 주옥같은 특강도 탄성을 자아냈지만, 무엇보다도 만족도가 높았던 것은 섬김을 몸으로 실천한 국내외 봉사탐방 활동이었다.

캄보디아에서 헐벗었지만 밝고 맑은 눈망울의 아이들과 만남, 연해주에서 그동안의 고난스러운 인생의 자욱이 역력한 주름살을 지닌 고려인 할머니들

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느끼는 순간이었다는 게 참가자들의 소감이다. 호텔을 벗어나, 찾아가는 교육시간에는 직장사역의 현장으로서 모델이 된 청와대 시찰 및 신우회와의 만남, 인천국제공항공사 이채욱 사장의 고객과 직원을 섬기는 자세, 그리고 세계 최고공항으로 우뚝 서게 한 첨단시스템 등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한국 지성의 상징인 이아령 중앙일보 고문은 종강강연에서 신앙고백을 담은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주제로 그간의 숨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70년의 인생 여정에서 산다는 게 무엇인지 고민하며, 지적인 오만을 버리고 1년간 일본에서 혼자 생활하면서 피가 뚝뚝 흐르는 삶의 현장에서 비로소 자기를 만나게 된 진솔한 이야기였다. 항상 신앙에 갈등을 느끼게 되는 우리의 영성은 종점이 아니고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노력해야 하는 종교적 삶의 과정이라는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다.



수료증을 받고 있는 회원들

열정을 다해 공부하고 서로 섬기며 사랑했던 1년 달간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는 종강식은 김은정 첼리스트와 CCM가수 조수아의 풍성한 공연이 함께 했다. 특히 이증기 동보중공업 회장, 임오혁 금성기와C&S 대표, 유영애 산림조명 대표, 설동순 순창고추장 대표 등 4명은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하여 전체 교육생을 대표해 진솔한 소감을 전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이번 CLA 1기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룬 것처럼 CLA 2기에서도 크리스천 리더들의 섬김의 리더십 모델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많은 분들이 협력해 주기를 바란다. **김재민**

<수료 소감 전하는 수료자 대표들>



CBS와 인간개발연구원이 함께 하는

Christian Leaders Academy 2기

“크리스천 리더들이 깨어야 세상이 바뀝니다.”

‘크리스천 리더스 아카데미’는 21세기 경영계의 화두인
예수의 섬김 리더십을 함께 공부하고 실천하는 교육의 장이 될 것입니다.
지난 35년간 CEO들의 새벽을 깨워온 인간개발연구원의 교육시스템과 강사진,
그리고 한국 최고의 전통과 권위를 갖고 있는 CBS가 국내 최고의
고위경영자과정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CBS 사장 이재천 /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장만기



Christian Leaders Academy Speaker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



김광석
참촌화장품 회장



김수홍
인천대교(주) 대표이사



김승규
아가페재단 운영위원장



김장실
예술의전당 사장



김준규
검찰총장



김창옥
퍼포먼스트레이닝연구소 소장



박선규
문화체육부 차관



박종원
코리안리 대표이사



손욱
전 농심 회장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초빙교수



송자
명지학원 이사장



송병락
서울대 명예교수



양병무
재능교육 사장



오다케 요시키
일본 AFLAC 창업자



이경숙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이동원
지구촌교회 목사



이배용
국가브랜드강화위원회 위원장



이승환
홍플러스 그룹 회장



이어령
중앙일보 고문



이용상
한국청조과학회 회장



이장로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이재포
CBSi 사장



인요한
세브란스병원 외국인진료소장



정덕구
니아재단 이사장



정운찬
전 국무총리



정태기
크리스천 치유상담원 원장



정태영
현대카드 사장



조동성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조서환
세라젠H&B 사장



조용근
한국세무사회 회장



최갑홍
한국표준협회 회장



이만의
환경부 장관

크리스천 CEO, 서번트 리더십으로 세상을 바꾸다!

Christian Leaders Academy Program

- 교육기간 : 2011년 3월 8일 ~ 2011년 7월 12일
- 교육장소 : 팔래스호텔 12층 스카이블룸(반포동) ■ 주 회 : CBS, 인간개발연구원
- 모집대상 : 크리스천 CEO, 오피니언 리더 50명
- 교육문의 : 정용달 팀장 TEL : 02-445-1949 / 김인선 TEL : 02-445-1946
-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901-588813 / 예금주 : (재)CBS ■ 홈페이지 : <http://www.cla.or.kr>

정성헌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

공군본부 '하늘사랑아카데미'

2월 11일(금)

정리 · 정용달 팀장 (dal2020@khdi.or.kr)

북한 도발과 비대칭 위협

본원은 1995년부터 전국의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공직자를 비롯한 지역 주민들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지방자치가 발전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는 병영선진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군부대를 대상으로 아카데미가 시작되어 현재 공군본부, 육군본부 등에서 정기 아카데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 공군본부 및 예하 부대 간부들을 대상으로 개최되고 있는 '하늘사랑아카데미'는 변화와 트렌드 인식, 창조적 업무수행 역량 고취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군 복무자의 능력향상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등 정보화를 통해, 학습하는 병영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번 명사초청특강에서는 지난 2월 11일, 공군교육사령부에서 '북한 도발과 비대칭 위협'을 주제로 강연한 김태우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의 강연을 소개하는 지면을 마련하였습니다.



● 김태우 책임연구원

한국외국어대 통역대학원을 졸업했으며, 미국 뉴욕주립대에서 핵전략, 핵정책을 전공해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대우, LG 등 기업에서도 일한 바 있으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경수로기획단 자문위원, KBS TV 객원해설위원, 세계일보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현재 안보 및 핵 전문가로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책임연구원 겸 군비통제연구실장으로 일하고 있다. <한국 핵은 왜 안 되는가>, <미국 핵전략 우리도 알아야 한다> 등의 저서가 있다.

최근에 있었던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 사건을 중심으로 북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강의에 앞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다. 첫째, 북한은 동족인가 주적인가? 둘째, 북핵은 통일이 되면 자산이므로 반대할 필요가 없다? 셋째, 대북지원이 평화통일에 도움이 될까? 넷째,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강경정책인가? 다섯째, 북한의 도발, 참아야 할까 응징해야 할까? 여섯째, 동족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어야 할까? 모든 질문에 뚜렷한 정답을 말하기란 쉽지 않다. 다만 이러한 질문을 가슴에 담아두고 강의를 시작하겠다.

핵무기, 그 자체가 심각한 위협 대상

상식적인 차원에서 핵무기가 무엇인지 살펴보자. 핵무기는 한 번 터지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6단계의 파괴현상이 일어난다. 첫째, 폭풍파(Blast Wave)가 일어나고, 둘째, 열파(Heat Wave) 단계에서는 일정 반경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

그 다음이 방사선파(Radiation Wave) 단계와 전자자기파(EMP) 단계인데, 전자자기파는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보다 컴퓨터 회로를 망가뜨려 휴대폰부터 지하철, 비행기, 인공위성 등의 작동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병원 수술대

에 누워있던 환자들은 기계가 멈추면서 죽을 수밖에 없고, 물류창고도 온도 조절이 안 돼 제품이 부패하는 상황들이 발생한다.

다섯째, 낙진(Fallout) 단계에서는 방사능 물질이 하늘에 떠 있다가 서서히 떨어져 사람들을 죽게 만든다. 마지막 원자병(Atomic Disease) 단계에서는 피부암, 기억상실증 등을 유발시켜 두고두고 사람을 죽게 만든다.

전문가들은 초보적인 핵무기를 가지고 여러 차례 시뮬레이션을 했다. 지구상에서 가장 초보적인 핵무기는 1945년 히로시마에 떨어진 것으로 오늘날 미국이나 러시아가 갖고 있는 핵무기에 비하면 장난감 수준이다. 그러나 이 초보적인 수준의 핵무기가 서울 한복판에 떨어진다면 한 달 안에 50만 명 이상이 사망하는 등 수도권은 황폐화 된다. 그런데도 북한의 핵무기가 별 것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비대칭 위협 믿고 지속적 도발 감행

북한이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 사건을 일으킨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내적인 이유는 경제난, 후계구도, 내부단속이 필요했고, 대외적인 이유는 대남압박, 기싸움, 북방한계선(NLL), 북중동맹 등의 이유가 있다. 그러나 북한이 남한에 대한 도발을 감행할 수



있는 진짜 이유는 비대칭 위협 때문이다. 비대칭 위협은 여러 분야에 걸쳐 존재한다. 핵무기, 화학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WMD) 분야에 있어서 북한이 일방적 우위를 갖고 있다. WMD 부분의 비대칭이 다른 분야의 비대칭 위협 전체를 합친 것보다 크다.

두 번째는 북한이 휴전선 일대에 대량 배치하고 있는 장사정포의 비대칭이다. 만약 북한이 휴전선 일대 야포들의 포문을 일시에 연다면 시간당 10만 발이 쏟아진다. 전쟁이 시작되면 초기에 우리 측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북한만큼 야포를 깔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답은 그렇게 해도 비대칭 위협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북한의 야포들은 우리의 서울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만큼의 야포를 설치한다고 해도 북한의 실정을 감안하면 포탄 값도 건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 하나의 비대칭 위협이 북한의 특수부대이다. 20만 명의 특수부대를 가진 나라는 북한밖에 없다. 전형적인 특수부대는 소수의 인원이 적 후방에 침투해 독가스를 살포하고, 지하철을 테러하고, 아파트 단지에 독극물을 뿌리고, 암살하고, 비행장을 파괴하고 도망가 숨어서 생존하는 훈련을 받은 부대이다. 이런 부대는 민주국가에서는 훈련하기 어렵다. 잠수함도 마찬가지다. 대학에서 강의하다 보면 북한은 잠수함이 70척이나 되는데 왜 우리는 잠수함이 부족해 비대칭으로 남아있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한국이 돈이나 기술이 없어서 잠수함을 못 만드는 것이 아니다. 북한은 근본적으로 공세적이고 침투적인 대남전략을 갖고 있는 반면 한국은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대북전략을 갖고 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북한을 먼저 공격할 일은 없다는 것을 북한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런 현실을 북한이 잘 활용해서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다.

안보전문가 입장에서 가장 심각한 비대칭 위협은 바로 정신전력이다. 북한은 최소 7년간 군복무를 한다. 북한군 상황이 좋지 않지만 숙련도나 정신무장은 우리 병사들에 비해 월등하다. 반면 우리는 '왜 동족에게 총을 겨냥야 하나?'고 반문하는 병사들이 적지 않다. 거기다 군복무기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군대에 대해 알만 하면 제대를 한다. 한국 전쟁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젊은 세대들이 숙련도마저 없으니 남북한

간의 정신전력 격차가 얼마나 크겠는가?

북한은 이러한 비대칭 위협을 믿고 계속해서 도발을 하는 것이다. 비대칭 위협이 방지되고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은 3단계의 폐해를 겪게 될 것이다. 첫째, 군사적 취약성과 대응의 상실이다. 과거 북한의 도발은 휴전선에서 총격전이 오가는 정도였다. 사실 이 정도로 우리가 심각한 불안감을 느끼지는 않는다. 그런데 지금은 북한이 막대한 비대칭 위협을 바탕으로 도발을 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전쟁할 엄두도 내지 못하면서 우리 장병과 민간인이 죽어도 물러서게 되고, 도발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다.

두 번째 폐해는 정치적 예측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천안함 사태 직후에 일어난 일부 병사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병사들이 부모에게 전화해서 그 부모가 다시 사단장에게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라고 항의전화를 했다. 과거에 북한이 도발하면 국민들은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안보세력을 지지했었다. 그런데 이제는 핵을 가진 북한과 전쟁을 하면 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북한을 달랠 정치인을 키워야겠다는 패배주의 투표 성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남한에서 패배주의적 투표를 하게 되고, 친북주의자들이 투표에 가세해 여론을 왜곡한다면 사태는 심각해진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 '천안함 사태가 조작됐다'는 글에 아무 것도 모르고 댓글과 악플을 달면서 여기 저기 퍼다 나른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세 번째 폐해는 남북관계가 황폐화된다는 것이다. 남북관계가 이렇게 고착된다면 한국은 막대한 경제적 비용에도 불구하고 북한 눈치만 살피면서 전전긍긍하게 될 것이다.

천안함 사태, 연평도 포격이 남긴 과제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 사건이 국민과 정부, 언론, 정치권, 군에게 어떤 과제를 남겼을까? 첫째, 대한민국 국민은 국가생존, 국가안보에 대해서는 늘 귀를 열고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것이 안보의식이다.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는 우리 국민에게 안보의식이라는 의무를 다시 한 번 각인시켜주었다.



둘째, 언론은 국민의 알권리와 국가안보라는 두 가지 상황에서 적절한 절충선을 찾아야 한다.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 사건이 일어나자 우리 언론 기자들은 24시간 취재해 매시간 상황을 뉴스로 내보냈다. 사건이 일어나고 24시간이 안 되어 신문들은 우리 군의 잘못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지면을 도배했다. 도대체 어느 나라를 위한 언론인지 모르겠다. 적어도 그 시점에서 선진국 언론이라면 도발을 감행한 북한을 규탄해야 마땅하다.

셋째, 정부는 비대칭 위협의 3단계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우리의 NLL은 어떤 일이 있어도 수호해야 한다. 만약 NLL이 북한이 원하는 대로 되면 인천항이나 세계 최고의 인천공항은 지금처럼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인천의 해경, 해군, 인천방어사령부 등 이 일대의 전략이 모두 바뀌어야 한다.

넷째, 군의 과제가 있다. 사실 천안함, 연평도 사태는 전술적인 면에서 우리 군이 잘못된 것은 없다. 천안함 함장은 규정에 따라 움직였고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는 시설이 완벽하지 않았다는 한계 사항이 있다. 연평도 포격은 더욱 그렇다.

그러나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중추부가 되돌아볼 사항이 많다. 중추부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합참, 국방부, 군 수뇌부, 정부까지 책임이 갈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작전 전략차원에서 판단하고 예방할 책임은 모두 중추부에 있다.

연평도 포격 당시 어느 기자가 어떻게 연평부대에 포가 6문밖에 없는지 해병은 뭐하는 곳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길래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다. 연평부대에 6문의 포밖에 없는 것은 중추부의 결정이지 해병대의 결정이 아니다.

2002년 제2연평해전 때도 현지 해군부대의 잘못보다는 중추부 잘못으로 우리 장병들이 희생된 측면이 적지 않다. 당시 우리의 교전수칙은 북한 배가 NLL을 넘어면 1차 경고방송, 2차 경고사격, 3차 차단기동이었다. 차단기동은 북한 배 앞에 우리 배의 옆구리를 대주고 막으라는 얘기다. 이걸 자살행위나 마찬가지다. 마지막에는 선제사격을 하지 말라는 지시가 청와대에서 내려왔다. 이런 규칙을 가지고 우리의 고속정들이 나간 것이다. 이것은 현지 부대의 잘못이 아니다.

당면한 안보 위협에 대처하는 구조 만들어야

우리나라의 선진 국방을 위해서는 5가지 목표가 필요하다. 첫째, 국민과 군의 거리를 좁혀야 한다. 국민의 군대로 재탄생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 군의 일체화와 합동성이다. 우리 군이 정말 합동성이 강한지 살펴봐야 한다. 셋째, 당면한 안보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군사력이다. 탱크 1000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한가, 스텔스기를 한 대 더 만드는 것이 필요한가를 따질 때 전면전에서는 탱크가 효과적이지만 도발 방지를

위한 위협용으로는 스텔스기가 유리하다. 당면한 안보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군사력의 우선순위로 투자를 해야 한다. 넷째, 미래 잠재적 안보위협에 대처하는 바른 자세를 가져야 한다. 다섯째, 예산효율화 및 다기능복합 군사력을 갖는 것이다. 어떻게든 국민의 세금을 절약해야 한다. 현재 이 다섯 번째 목표를 놓고 만들어진 건의안이 총 72개로, 이를 청와대와 국방부가 조율하고 있다.

많은 안들 가운데 공군을 위한 한 가지만 소개하겠다. 지금 합동군사령부 통폐합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개혁과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선결 과제가 하나 있다. 군 수뇌부의 의사결정 구조를 바꾸는 일이다. 군 수뇌부의 의사결정이 공정하다고 할 수 있는 구조를 먼저 만들고 나서 남 탓을 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공군이 빠른 시일에 스텔스기를 갖는 것은 미래 안보위협에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당면한 안보위협에 대처하는 것이다. 그런 인식을 바꾸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조종사 인력이 군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또한 우리 공군이 빨리 무인기 시대를 여는 것이 값싼 국방으로 가는 길이고 첨단공군으로 가는 길이다. 강의 초반에 던졌던 질문의 답을 찾아보면서 정리하겠다. 첫째, 북한은 동쪽인가 주적인가? 정답은 둘 다이다. 동쪽으로 본다는 것은 북한을 통일의 동반자로,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파트너로 보는 것이다. 반면 주적으로 보는 것은 우리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경계하고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 어떤 게 먼저일까? 답은 먼저 주적으로 보고 나를 지키면서 동쪽으로 도와줘야 한다. 둘째, 북핵은 통일되면 자산이므로 반대할 필요가 없다? 이 또한 북한을 동족의 안경으로 보면 반대할 게 없지만 주적의 안경으로 보면 우리 목숨을 위협하는 흉측한 일이 된다. 셋째, 대북지원이 평화통일에 도움이 될까? 이것은 대북지원의 투명성에 달려 있다. 우리가 지원하는 것을 북한주민들이 남한에서 온 것임을 알고 잘 쓴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불투명한 대북지원은 북한이 남의 돈을 갖고 생색내는 꼴이 된다. 넷째, 만약 아들이 군대에 가서 “동족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어야 하나요?”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답할 것이다. “북한은 동족도 맞고 주적도 맞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대북정책은 동쪽으로 쳐다보면서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화해협력이라는 수레바퀴와 안보라는 수레바퀴가 함께 돌아간다. 적어도 네가 군복무 하는 동안에는 안보 수레바퀴를 열심히 돌리라고 명을 받은 것이니까 제대할 때까지 북녘 땅을 향해서 열심히 총부리를 겨눠야 한다”고 얘기해줄 것이다. 다만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만 알면 된다. **KHDI**



“주거복지의 따뜻한 손길로 60만 서명 돌파”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지원 100만인 서명운동 주도한 주택관리공단

주택관리공단은 IMF 경제위기로 어렵던 1998년도에 정부의 공기업 경영혁신계획에 따라 대한주택공사(현 LH)의 주거복지, 임대업무, 유지보수, 주택관리 등 정부의 서민주택정책 일환으로 기능을 분리해 만들어진 기관이다. 다시 말하면 정부재투자기관이다.

주택관리공단이라고 하면 아직도 생소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다. “이름은 들어봤는데... 뭘 하는 회사인지는?”라고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도 많다. 바로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영구임대주택 14만 호 126개 단지 등 공공임대주택 26만여 세대, 303개 단지를 관리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주택관리공단이다.

영구임대주택은 1989년부터 1993년까지 정부재정으로 19만 호가 건설된 최초의 사회주택으로서 입주자격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계층으로 한정되고, 기초생활수급자 85만 가구 중에서 13%인 약 11만 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이에 주택관리공단 노·사는 ‘따뜻한 이웃’이라는 슬로건 아래 독거노인, 장애인 등 불우입주민 5000여 세대에 전담직원인 관리홈닥터를 1:1로 배정해 세대보수, 가사지원, 민원대행 등의 밀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업의 사회공헌팀, 공익재단 등과 연계하여 1기업이 1단지와 결연을 맺고 후원해주는 1사1단지 결연캠페인, 축구를 통한 아동지원 프로그램인 ‘푸른꿈 날개달기’, 장례지원서비스 등도 지원하고 있다.

2001년부터는 이웃사촌 전통을 회복하여 올바른 주거문화를 형성하고자 일상생활 속에서 이웃과 교류할 수 있는 미니공원, 원두막, 쉽

터 등을 조성했고, 마을화합잔치, 경로행사, 명절행사, 자원봉사 등의 단지 내 행사와 민간사회단체, 교육기관 등과의 연계를 통한 가든리더, IT플라자, 아름다운가게, 엄마손 밥상 등의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 중 2008년부터 시작한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은 연간 100여 개 공공임대 단지에서 클래식, 마당극, 재즈 등의 수준 높은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국토해양부, LH의 지원으로 노후된 공공임대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04년 447억 원, 2009년 2219억 원, 2010년 350억 원 등의 재정을 투입하여 복도새시 설치, 어린이 놀이터 시설 교체, 조정시설 개선 등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저소득계층 입주민의 주거비 경감을 위한 노력으로 지자체 조례개정 청원을 통해 공공수도료 및 전기료 지원, 지식경제부, 가스공사 등과 협의하여 중앙난방 보일러의 연료인 가스 가격 인하, 병무청과 협의하여 공익근무요원 배치, 법무부 지방보호관찰소와 협의하여 사회봉사명령자 유치,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하여 노인, 여성 등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현재까지의 노력만으로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사회복지 서비스, 취업교육 등을 바탕으로 자활과 계층상향 이동을 촉진코자 하는 영구임대주택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부족한 것이 사실이며, 좀 더 많은 정책적 배려와 사회적 관심이 영구임대주택이 건강한 우리사회의 견고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다.



주택관리공단의 전국 400여 개 관리소의 2200여 조합원들은 70만 영세서민 입주민의 손발이 되어 공단의 미션인 ‘행복과 희망이 넘치는 공공임대단지’를 위해 365일 밤낮으로 헌신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의 유기적 유대관계 유지에도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지역복지단체, 공공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입주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주택관리공단 노·사는 인간개발연구원, 대한노인회, 서울메트로, 봄온아카데미, 서울시사회 등 5개 기관과 함께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지원민간단체협의회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지원 활동과 관련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본격적인 협력활동에 들어갔다.

전국 각지에서 주택관리공단 조합원들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지원 100만인 서명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대형마트, 역대하실, 지하철역, 관공서, 거리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대중의 관심과 서명을 유도하고 있다.

주택관리공단노동조합의 김용래 위원장은 “각 계각층의 노력으로 세 번째 도전인 2018 동계올림픽 유치에는 반드시 성공할 것을 기대한다”며, “평창의 도전과 성공으로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정착을 통해 분단국가라는 오명을 세계인의 뇌리 속에서 지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재민**

동아시아역사(東亞細亞歷史)

왜곡(歪曲)의 시정(是正)



만주 몽골초원-중국대륙 : 동아시아 제국(帝國)들의 흥망성쇠를 결정했던 핵심 지역(三極)



●홍원탁 교수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콜롬비아대학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University of Wisconsin-Milwaukee 경제학 교수, 한국개발연구원 수석연구원 등으로 활동했으며, 1977년부터 2005년까지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했다. 1968년 이후 국제적 학술지와 출판사에서 출판된 연구논문에 국제경제학에 관한 20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했고, 1980년부터 30년 넘게 동아시아 역사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

흔히 중국 사람들이 역사를 왜곡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무엇을 어떻게 왜곡했는지 모르고 있다. 발상의 전환과 새로운 분석의 틀을 가지고 사료를 접근해야 왜곡의 핵심을 파악하고 근본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사서들을 보면, 대흥안령 동쪽의 소위 '야만인'들을 크게 둘로 나누어, 서부 만주(滿洲) 요서(遼西) 초원지역의 선비(鮮卑) 부족들을 동호(東胡)라 불렀고, 중부와 동부 만주의 통구스족들을 모두 함께 동이(東夷)라 불렀다. 동이는 중부 만주와 한반도에 걸쳐 고조선, 부여, 고구려, 삼한 등을 세운 예맥(濊貊) 통구스와 서부 만주 삼림지역의 숙신-읍루의 후예로서 핵심 만주족의 선조인 말갈-여진 통구스로 나뉜다. 한반도는 단순히 중부 만주의 연장선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중국 대륙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복했던 이민족 왕조가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원(元 1206-1368) 제국 하나만 몽골초원으로부터 내려왔고, 나머지 4개는 만주에서 왔다는 아주 간단한 역사적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다. 즉, 탁발선비 북위(拓拔北魏 386-534)와 거란선비 요(契丹遼 907-1125)는 모두 서부 만주 초원 지역 출신인 동호-선비족들이 세운 나라들이고, 금(金 1115-1234)과 청(淸 1616-1911)은 모두 동부 만주 삼림 지역 출신인 여진-만주족이 세운 나라들이다. 후대에 끼친 영향력이 측면에서 보면, 서부 만주 출신 명단에다 352년에 북 중국을 차지해 잠시나마 정복왕조를 한 번 실현해 보인 단명의 모용선비 전연(慕容前燕 337-70)도 추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한번도 남쪽으로부터 정복된 적이 없다.

구당서에 의하면 칭기즈칸의 몽골족은 거란족의 별종인 실위-몽골(失韋蒙兀) 부족에 속한다. 북사(北史)에 의하면 거란족은 서부 만주 우문(宇文) 선비족의 후예다. 10세기 초, 요 시조 야율아보기의 공격을 받은 실위-몽골 부족은 북부 만주 논강-흑룡강 주변 삼림지역에서 아르군강 동쪽 초원으로 이주했고, 11세기에 와서 오논-케룰렌 강 유역에 정착해 전업 유목민 생활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그 근본을 따진다면, 칭기즈칸의 부족은 서 만주 몽골선비족이라고 부를 수 있다. 캠브리지대학 중국 역사 전집에서도 이 내용을 분명하게 밝히

고 있으니 무슨 큰 비밀도 아닐 것인데, 어찌된 셈인지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지극히 소수에 속한다. 분명한 것은 중국 역사에 등장하는 정복왕조 모두가 만주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세뇌를 받아 온 한(漢)족 중심 접근법을 보면, '천하의 중심에는 천자가 다스리는 한족 중국이 있고, 그 주변의 비 한족 야만인들은, 천자가 확립한 국제 질서에 순응해, 조공을 바치며 중화 문명의 은택을 보고 살아왔다'는 식으로 동아시아 역사를 서술한다. 현실을 무시하는 이념적 사고의 틀 속에는 중국 '주변의 야만인'이나 '북방의 유목민'은 추상적으로나마 존재하지만, '만주'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다. 그저 중국의 '동북' 변방일 뿐이다. 우리가 동아시아 역사의 왜곡을 시정하려면, 최우선적으로 만주 대륙을 동아시아 제국(帝國)들의 흥망성쇠를 결정했던 핵심 지역의 하나로 그 본질적인 개념을 정립해야 한다.

"수(581-618)와 당(618-907)은 한족제국이 아니라 서만주 선비족 정복왕조의 직계 후예"라는 주제로부터 시작해서, "정복왕조의 특징인 이원(二元)통치체제의 내용과 진화 패턴", "이민족 정복자들이 흔적도 없이 중화 문명에 흡수-융화(漢化)되었다는 왜곡" 내용 등을 다음 회부터 차례로 다루어 보려 한다. "고대 한일관계"는 좀 뒤로 미루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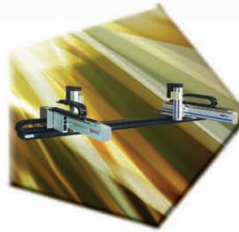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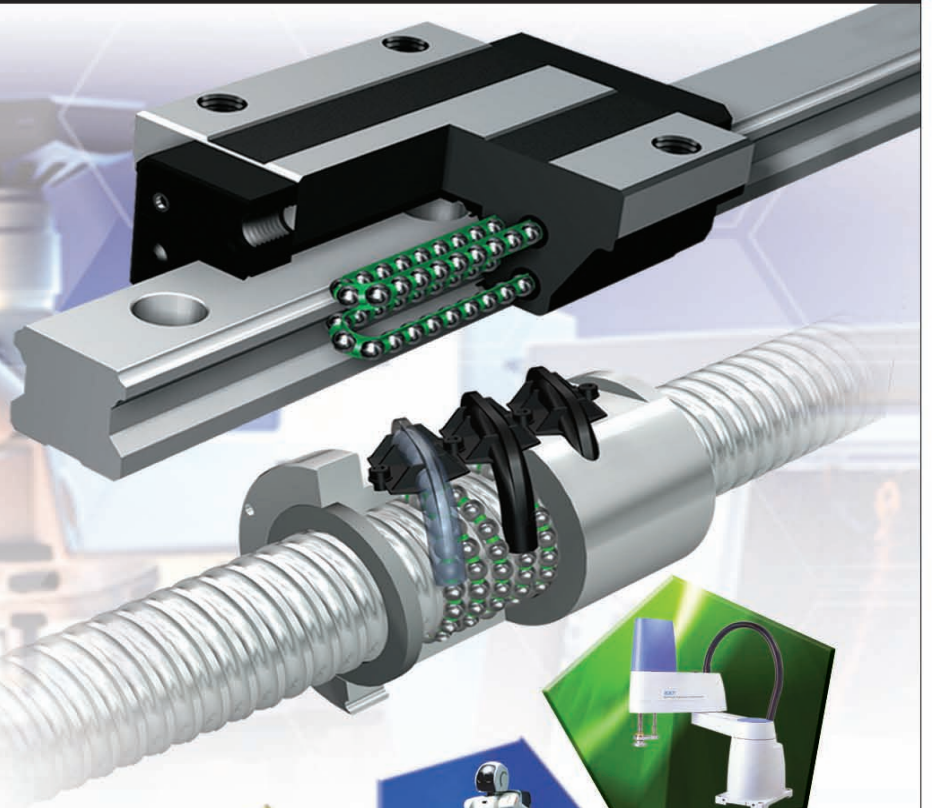
수-당의 성격 구명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언젠가 사학계에서 수와 당을 탁발선비 정복왕조인 북위-서위-북주의 직계로 분류하는 날이 오게 되면, 지난 2천 년간의 중국 역사란 것이 이민족에게 간헐적으로 정복당한 역사가 아니라, 이민족의 지배가 단 두 번 한족 제국의 등장으로 중단되었던 역사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이다. 후한이 220년에 멸망한 이후 청초(淸朝)가 멸망하는 1911년까지, 제대로 된 한족 제국이란 송(宋)과 명(明)밖에 없는 것이다. 그나마 송은 남쪽으로 밀려나 북 중국을 차지한 요와 금 조정에 조공을 하며 살았다. **▶▶▶**

2010년 9월부터 집필해주셨던 전영기 중앙일보 편집국장의 칼럼에 이어 이번호부터 홍원탁 서울대 교수의 칼럼이 시작됩니다. 좋은 글로 지면을 빛내주시는 전영기 국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한제어 메카니즘 직선운동 시스템

**SAMICK
THK
LM SYSTEM**

SAMICK THK since 1960
1970
1980
199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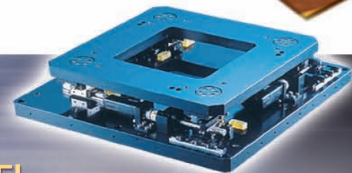
1

삼익THK(주)의 정신은
고객만족으로 연결되는 *Hot-Line* 입니다.

<http://www.samickthk.co.kr>

항상 최고의 제품으로 고객만족에 최선을 다하는 기업-삼익!

삼익은 전 생산공정 하나 하나에 세심한 배려와 정성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반세기에 걸쳐 쌓아온 경영 노하우와 최첨단 신기술로 귀사의 꿈을 이루어
나갈수 있는 파트너로서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삼익THK주식회사
SAMICK THK CO., LTD.



영업본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889-13(금강타워 16층)
TEL : (02)3454-0811 FAX : (02)3454-0792

전국대표전화 : 1588-9931

본 사 | TEL : (053)665-7000 FAX : (053)581-9933 인천영업팀 | TEL : (032)812-9354 FAX : (032)812-9352 안성영업팀 | TEL : (031)650-3600 FAX : (031)655-7740
수원영업팀 | TEL : (031)899-9500 FAX : (031)286-2535 천안영업팀 | TEL : (041)621-0170 FAX : (041)621-0171 대구영업팀 | TEL : (053)581-3421 FAX : (053)581-3420
대전영업팀 | TEL : (042)934-2308 FAX : (042)934-2307 구미영업팀 | TEL : (054)471-2761 FAX : (054)471-2763 광주영업팀 | TEL : (062)251-4782 FAX : (062)268-8494
창원영업팀 | TEL : (055)285-8472 FAX : (055)285-8475 부산영업팀 | TEL : (051)329-8555 FAX : (051)329-8550 울산영업팀 | TEL : (052)273-9941 FAX : (052)273-9820



인생을 함께합니다
라이프플래너®

푸르덴셜생명의 파워브랜드는?

푸르덴셜생명의 파워브랜드는 사람입니다 1위를 만드는 사람들, 라이프플래너®

보험은 고객과의 약속이며, 함부로 팔 수 없습니다

불완전 판매비율 업계 최저 (출처: 한겨레 2010년 7월 1일 보도기사, 2010년 3월 설계사 체널 기준)

보험은 고객의 인생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 의무입니다

우수인증설계사 비율 3년 연속 1위 (출처: 금융감독원 2010년 6월 28일 보도자료, 2010년 3월 기준)

고객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기 위해 항상 노력해야 합니다

MDRT 등록 설계사 비율 1위, 종신회원 비율 1위 (출처: MDRT협회 5월 말일자 산출 통계, 2009년 12월 말 기준)

푸르덴셜생명의 자부심, 남녀라이프플래너®를 모집합니다

• 자격대상: 정규 4년제 대졸자로서 직장 경력 2년 이상 ▶ 모집문의: 푸르덴셜생명 CS센터 1588-3374

*라이프플래너® (Life Planner)는 푸르덴셜생명 및 계열회사, 그 자회사 고유의 공식등록 상표로서
고객의 재정안정계획을 설계하는 생명보험 전문가 그룹을 지칭합니다

푸르덴셜생명은 난치병 아동들의 소원을 이뤄주는
「한국메이크어워시재단」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푸르덴셜생명



Prudential